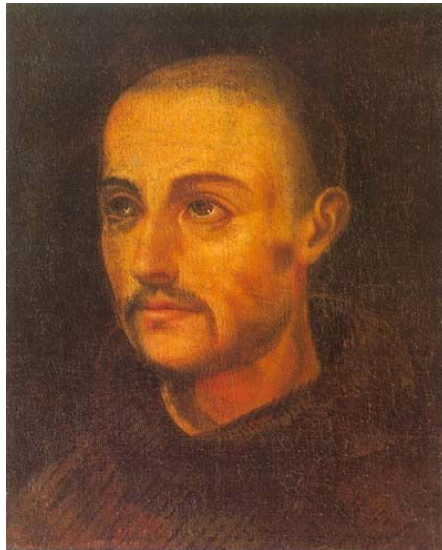


# 천주의 성요한의 태도로 실천하는 호스피탈리티의 길

수도회의 영성





© Copyright 2004

천주 의 성 요 한 수 도 회 총 본 부

번역

David Giddings/기회란 역

그 래 피

Arts Italia Editrice \_ 로 마

사진

Arts Italia Editrice

제작

Papergraf of padua

ISBN

88-89185-00-7



## 시작의 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규정한 원칙을 실행하고 수도생활의 적응과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Decree Perfectae Caritatis)을 바탕으로 한 우리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에서는 천주의 성 요한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남겨준 호스피탈러티의 카리즘에 따라 우리 수도자들과 협조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목과 복음화 차원을 육성하면서 진보된 기술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인간화에 관심을 두고 헌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오늘날 의료분야의 생명 윤리적인 면을 세심하게 염두에 둠과 동시에 협조자들은 물론 보살피는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며, 성교회의 교도권 (Magisterium)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응답할 길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의 영성에 관한 묵상에 전념해 오면서 이 책을 “*천주의 성 요한의 태도로 실천하는 호스피탈러티의 길. 의료봉사 수도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사들 그리고 특히 양성 책임자들과 많은 협조자들도 오랫동안 이를 지지해 왔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현시대적 관점에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우리의 관점을 적절히 이해 시킬 수 있도록 문서화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들 특히 많은 수사들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만 전체 수도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묵상집이 필요하였습니다.

1994년에 개최된 제 63차 총회에서 이점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초안작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성기간은 일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1995-1996년 천

주의 성 요한 탄생 500주년 행사로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에서나 있을 수 있듯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초안작업 기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회에 이어 여러 나라 형제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발렌틴 리에스코(Valentin A. Riesco), 호세 산체스(Jose Sanchez), 버나드 바인더(Bernhard Binde)r, 스테판 데 라 로사(Stephen de la Rosa), 라파엘 테(Rafael The), 프란치스 만나파람필(Francis Mannaparampil), 협조자이자 사제이며 사회학자인 피에트로 구아뜨로치(Pietro Quattrocchi) 교수.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총장이신 까밀로 마치세 신부님(Fr. Camilo Macise)께서는 위원회 위원들 각자에게 소임으로 주어진 일들을 도와주는 고문역을 맡아 주었습니다. 위원회 모임 중 두 차례는 까밀로 마치세(Camilo Macise) 신부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성 생활에 권위있는 신학자를 선임하여 마치세 (Macise) 신부님의 지도 하에 수집된 자료를 모두 통합한 후 현시대에 맞게 우리 수도회의 영성에 관한 최종본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을 맡아줄 책임자를 찾아냈지만, 당시 그분이 극도로 바쁜 와중에 있었고, 이같이 중요한 편찬작업을 맡아 심혈을 기울일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음을 전해왔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2000년 65차 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최종본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부분별로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는 일을 맡았던 호세 크리스토 레이 가르시아 파레데스 (Jose Cristo Rey Garcia Paredes) 신부님에게 이미 모든 자료가 전해졌기 때문에 최종본이 곧 나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총회가 폐회된 후 크리스토 레이 (Cristo Rey) 신부님의 일을 돕기 위해 소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발렌틴 리에스코 (Valentin A. Riesco) 수사, 예수스 에타요(Jesus Etayo) 수사와 프란치스코 베나비데스(Francisco Benavides) 수사이며, 작업 편의상 공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글의 내용을 읽고 점검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도 전하

였습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우리 수도회 전역에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을 묵상의 도구로 삼아,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 걷고 있는 이 길에 천주의 성 요한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특히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에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취할지 생각하여 이를 우리의 사도직 현장에서 실천하며, 요한의 정신을 따르는 형제들과 협조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천주의 성 요한을 본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열매로,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그 전통을 널리 펼치면서 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천주의 성 요한의 모습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보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묵상의 열매가 이렇게 탄생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우리의 카리스마적인 근원인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천주의 성 요한의 성소를 네 가지 개념, 즉 비움, 부르심, 변화 그리고 일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러주고 있는 길은 책을 읽는 독자 개개인에게 매우 강력한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책의 전반부는 수도회의 굳건한 전통을 바탕으로 현 시대에 수도자와 협조자들이 함께 사명을 실행해 나가며, 수도회가 현재 활동하는 50개 국가에서 토착화가 필요함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두 가지 성서적 용어를 가지고 우리 영성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 용어가 지닌 본 의미를 분석한 후, 수도회의 과거 경험과, 현재 지니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성소의 총명한 성소의 관점에서, 천주의 성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 형제, 우리 존재의 관점에서 현대의 영성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은 영적인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의 길, 하나의 과정으로, 수도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며, 부름 받은 수도자

로서 그리고 협조자로서 개인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사명 안에서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이 나눔은 우리의 영성이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피어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 협조자들과 일치를 이룬 가운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조자들과 우리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힘을 쓰면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치관이 더욱 융성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리에 결코 귀가 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장마다 모두 현 시대에 맞는 언급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현시대를 말해주면서, 또한 곧 다가올 미래에 부름 받은 소명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II의 교도권 (Magisterium)에서는 교회의 모습과 봉헌생활의 영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수도회의 손에 이를 맡기어 천주의 성 요한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어디에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황을 비추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자비로운 그리스도와 호스피탤러티의 관점에서 천주의 성 요한이 생활한 영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주의 요한처럼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여행자로, 순례자로 길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우리 수도회의 주보이신 성모마리아 축일을 맞이하여 요한이 즐겨 호칭하였던 복된 성모 동정마리아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파스쿠알 필레스 페란도 총장 수사

*수도회의 거룩한 주보 성모축일*

*쿠바에서 수도회 설립 400주년을 맞이하여*

*2003년 11월 15일, 하바나*



## 도 입

1. 1538년 그라나다의 세든 어느 초라한 집<sup>1</sup>에서 “은총을 입은 천주의 요한, 이토록 경건하게 시작된 일<sup>2</sup>”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의 정신과 카리즘은 465년이 지난 이 시대에 까지 계속 전파되어 오고 있다. 그의 역량과 비옥함이 변화되어 나라와 대륙, 인종과 성별,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의 정신에 동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깊이 받아들여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재활 시켜주는 요한의 프로젝트를 걸머지고 나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2.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실제로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방식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과거의 방식과 시설들은 그 효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천주의 요한으로부터 전해 받은 유산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적 방식으로 생활하며, 새로운 열정으로 느껴야만 한다.

### 1. 시대의 변화

3. 시대의 변화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 세계화, 지역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성교회와 수도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 : 우리는 세계화 (거대한 전 세계 네트워크의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 (자국민의 문화와 가치관 인식) 의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움직임 모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 역시 가지고 있다. 인간화, 즉 연대를 바탕으로 하며 배타적이지 않은 세계화는 나라들간에, 여러 계층간에*

---

<sup>1</sup> 1587 회헌, 서문, pp 81-82

<sup>2</sup> 그라나다 천주의 성 요한 병원 규범 및 회헌 (1585), 최초 회헌 (초본 회헌 마드리드 1977, p.12 인용)

<sup>3</sup> 천주의 요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는 사회에, 성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역사를 통하여 그의 정신이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우리 수도회가 이 시대에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파스쿠알 필레스 페르난도 수도회 총장, 성령으로 인도 받으라 (갈 5:16), 1996년 10월 24일, 로마, 성 요한 수도회 총장 회람 (para 9.3)

그리고 개인간에 예전에는 생각치 못하였던 가능성을 줄 수 있다. 개방적인 지역화가 내부로만 굽어지거나 특성상 원리주의자가 아니라면 부를 가져올 수 있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망을 우리 시대에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카리즘 역시 세계화가 되면서 동시에 지역화가 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가 수많은 차별과 셀 수 없는 희생자들을 낳게 하는 이 세상에서 연대와 친절 그리고 자비를 세계화 하라는 성교회의 부르심에 우리는 특히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의 가치, 각 개인의 인격, 특히 세계화 되어 가는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들을 옹호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것을 통감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 변화에 따른 또 다른 특성 중 하나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현재해 있는 일반화되고 세계화 된 마음 상태를 일컫는다. 전제주의, 절대주의, 독단주의, 원로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였던 초기 유럽중심의 세계관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은 특히 젊은 세대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해 소박하고 단편적인 설명을 원한다. 대대적인 변화 보다는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며, 다원화와 다양성을 받아 들이고;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욱 수용하고 호스피탈리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르다는 배경과는 반대로, 호스피탈리티와 자비는 새로운 중요성을 띄게 되었고,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일하는 시설 내에서 행동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던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한 우리의 영성에 도전으로, 하나의 도덕 법규나 어떤 추상적인 요구 사항이 라기 보다는 한가지의 길,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인간생활과 크리스찬 생활의 다양성에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며, 따라서 상호관계와 친교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바로 이 이유로 함께 나누는 사명, 함께 나누는 카리즘, 함께 나누는 삶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과 위험 : 우리에게서 새롭고 멋진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새롭고 두려운 위험 요소들도 마주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대가 남긴 잔여 영향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로간의 관계도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아니다. 남녀간의 관계

도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고, 그 관계가 가정과 사회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경제력과 정치력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권력 (테러리즘, 마피아)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갈등 때문에 파생된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있기는 하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빠르게 가난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인간의 정신세계는 수많은 대립과 압박이 있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좌절하며 인간성을 상실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인 “삶의 의미”와 역사를 상실함으로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2. 이 점에서 살펴본 성교회와 수도회

4. 성교회도 이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교회가 아니다.

성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으로 복합되어 이제는 세계 보편화가 되었다.

성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위험과 문제들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 교회는 원래의 본성인 자비를 앞세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자 한다.

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자비가 있도록 교회를 선교사로 보내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교회는 새로운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5. 이러한 환경가운데 **천주의 요한의 카리즘**이 다시금 이 세계에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그 적절함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강조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수도회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표방한 채신의 과정을 당당히

그리고 신중히 출범시켰다. 우리는 시대에 맞게 카리즘을 깊이 살펴보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주의 요한의 카리즘을 이 시대에 맞게<sup>4</sup> 새로이 조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다. 지금 젊은 세대의 타고난 창의적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추와 세계화 된 이곳에서, 특히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 수도회는 성령의 새로운 길, 새로운 반응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회는 수사들 뿐만이 아니라 수도회의 문을 두드리는 성소자들 즉, 천주의 요한에게 내려진 카리즘의 은총을 우리처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도회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되고 있는 ‘함께 나누는 사명’과 ‘함께 나누는 영성’에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수도회는 다원화, 다문화, 다인종의 얼굴<sup>5</sup>을 보이고 있다. 수도회는 서구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주의 요한의 영적인 길을 보여주어야 할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

## 6. 우리에게 상속된 영적인 유산을 잃지 않고서 국가와 문화가 지닌 영적인 부를 수용하

<sup>4</sup> 65차 총회 선언문 참조, 그라나다, 2004년 11월 6일-24일;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호스피탈리티 헌장’, 로마, 2000년 3월 8일; ‘생명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함께 하는 수사들과 협조자들’, 로마 1992년 3월 8일; ‘3000년대 문턱에 선 새로운 복음화와 호스피탈리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제 63차 총회, 보고타, 1994년 10월 2일-28일; 피에르 루이지 마르케시, ‘2000년대를 향한 천주의 성 요한 수도자들의 호스피탈리티’, 로마 1986년; 파스쿠알 필레스,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수도회 형제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 1996년 10월 24일 로마; 파스쿠알 필레스, ‘3000년대 여명에선 호스피탈리티’ 천주의 성 요한의 예언을 실현하기 (회람 서신), 로마, 2001년 2월 2일.

<sup>5</sup> 우리 수도회는 수사가 1500명, 직원과 봉사자가 모두 4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은인이 30여만 명이다. 5개 대륙 46개국에 걸쳐 21개의 관구, 1개의 준관구, 6개의 총원지부, 5개의 지부가 있다. 아픈 환우들과 가난한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 센터가 293군데 있다. 이 모두 한 단체의 사람들이기는 하나 우리 수도회는 각기 다른 지역과 상황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중 고도로 발전된 선진사회가 있는 반면, 폭력과 전쟁 혹은 폭력의 여파에 시달리는 곳이 있다. 어떤 곳은 자유사회의 유익을 구가하며 살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리조차 심히 박탈당한 곳에 있기도 하다. 어떤 곳은 의료사도직 활동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사회적 사안들과 소외계층에 일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곳이 있는 반면, 존엄한 인간답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신체건강에, 또 어떤 곳은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면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곳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구가하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곳은 선진국, 어떤 곳은 후진국, 동양에 있기도 하고, 서양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호스피탈리티 헌장’, ‘천주의 성 요한의 방식대로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핌’, 로마, 2000년 3월 8일.p.1.

는 것이 수도회로서는 우리의 역사적 카리즘을 전해가는데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영혼에 문화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감지한다. 이 다른 두 세대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에 마음을 열고 지켜가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여정과 영원에 함께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도전들이 이제는 새로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던 카리즘을 받아들이는 것 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다. 이것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형상화 시키고 시대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성교회 안에서 “불타는 가슴으로” 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것을 은총으로 주시는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 영성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방심하지 않으면서 우리 앞에 열린 새로운 길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7. 이 문헌의 목적은 수도회 영성의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고, 오늘 우리 수도회의 특성대로 새롭게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 I. 기억 : 카리스마의 근원
- II. 복음서의 열쇠 :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 III. 영성의 길 : 현대의 호스피탈리티 영성



## I. 기 억 :

### 우리 카리스마의 근원

8. 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인 길을 묵상해 보자. 그러면 그 근원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길”의 상(像)이 그려질 것이다.

#### 1. 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인 길

9. 천주의 성 요한은 길 떠나는 방랑자였다: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나 멀고 고된 여행을 하면서, 이를 통해 내적인 순례와 영적인 여정의 구도를 그리게 되었다. 천주의 요한은 평생동안 내내 길을 나서는 사람으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맨발로 가파른 길<sup>6</sup>을 다녔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는 인간의 절망과 고통에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그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그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면, 즉, 비움, 부르심, 변화 그리고 일체로 정리할 수 있다

#### a) 비움 : 은총을 받기 위한 비움 - 1 단계

10. 계속된 실패 이후 천주의 성 요한은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의 충만함을 알게 된다: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 위에 높이신 하느님!”<sup>7</sup> 군인으로 나선 그의 첫번째 모험은 말에서 떨어지고, 위험에 처하면서 사도 바오로 처럼 실패로 돌아가고, 하느님이 주시는 도움 이외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였다<sup>8</sup>. 또한 보초를 서서 지키라고 했던 전

<sup>6</sup> 천주의 요한은 충만함을 이루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릴 그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썬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 (1DS), 7; 루이스 바우띠스타에게 보낸 편지 (LB), 6 & 29.

<sup>7</sup> 여러 서한 내용에 나옴.

<sup>8</sup> 후엔테라비아 지역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천주의 요한이 자원하여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프랑스

리품을 도난 당하자 그의 상사는 그에게 교수형을 명령하였는데, 결국 교수형을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군대에서 쫓겨나 군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은 빈털터리 신세로 남게 되었다. 요한은 후엔테라비아에서 오로빠사로 오는 길에 “세상의 것을 쫓으면 그대로 받게 되는구나”<sup>9</sup>라고 되뇌었다. 9년 동안 요한은 잠잠히 생활하다 터키군과 맞서 싸우는 황제의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하였다. 그는 비엔나에 다시 돌아와 라 코루나에 상륙을 하였다. 그곳은 고향 땅과 아주 가까웠고, 8살 때 떠나왔던 부모가 문득 그리워 고향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난 후 상심한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음을 알고 너무도 괴로워 하였다.<sup>10</sup> 그는 공허했다. 그는 삶의 무의미함을 알게 된 것이다<sup>11</sup>: “우리가 온 세상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현재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sup>12</sup>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라고 결심한 것이다<sup>13</sup>.

#### b) 부르심 : 영원히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 2단계

11. 요한의 삼촌은 요한에게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말하지만, 요한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14</sup>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길을 떠났지만 원하던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세빌라로 돌

---

에서 노획한 나귀가 있어 요한은 그 등에 올라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떠난 지 한 10km쯤 되었을 때 나귀가 눈에 익은 지역임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날뛰면서 달아나 버리고 요한이 그 등에서 떨어져 바위에 심하게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다. 한 두어 시간쯤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입과 코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와 그는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자 적군에게 잡힐 위험을 알아차리고 온갖 힘을 다하여 땅에서 일어나려 하였다. 그는 땅에 무릎을 대고 하늘을 응시하며 알아들을 수 없이 작은 소리로 동정 성모 마리아를 찾았다.. 그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동료들이 있는 진지로 겨우 돌아와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데 카스트로, 천주의 성 요한 전기, Manuel Gomez Moreno 천주의 성 요한의 생애와 업적, 천주의 성 요한의 첫번째 전기 (이후부터 카스트로), Ch.1, 마드리드, p33, J. Sanchez, o.c.)

<sup>9</sup> 카스트로

<sup>10</sup>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던 중산층 부모 밑에서 살다 8살이 되던 해에 한 성직자가 부모님도 모르게 요한을 데리고 가버렸다.” 카스트로

<sup>11</sup> “우리가 이 고뇌에 빠진 세상을 살아갈 때...모든 것이 사라진다”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6; 둘째 편지 10)... “이 불행한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며, 단지 초라한 천 조각 외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sup>12</sup>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 10

<sup>13</sup>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 10

<sup>14</sup> 카스트로



아와 양치기 일을 계속하였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 그는 슬픔에 빠졌다<sup>15</sup>. 결국 양치는 일을 그만두고 세우따로 떠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병든 가족을 돕기 위해 요한은 ‘도시 성벽’ 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매일 밤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을 그 가족에게 주었다.<sup>16</sup> 그러다 영적인 위기에 깊이 빠지게 되자 어느 학식 있는 수도자의 도움으로 세우따를 떠나 스페인에 돌아왔다. 요한은 지브롤터로 돌아와 그간의 일들을 고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청하였다. “이 영혼에 평화와 평온을 주소서..” 이는 “주님을 섬기고 영원히 그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보다 더 많이 내어주는 기도가 되었다.

*“요한은 성당마다 들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알려 달라고 간청하였다.”<sup>17</sup>*

12. 그는 살아가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는데, 결국 거리를 돌아다니며 책을 판매하는 책장사가 되었다. 새로운 일을 하며 정착하고 싶었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돈도 벌어 자선을 베풀기 위해 그는 “그라나다로 가 거기에서 정착하자”<sup>18</sup>고 결심하였다. 그라나다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어 안도를 하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절박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그는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다. 그는 성 세바스찬 축일에 순교자들의 암자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아빌라의 요한 신부<sup>19</sup>의 강론을 들었다.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요한을 기다리던 곳이었다.

13. 아빌라의 요한 신부는 요한의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루가 6,17-32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

*“설교가 끝나자마자 요한은 밖으로 뛰쳐나와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소리쳤다.. 그는 책과 물건들이 있는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달려와 숙된 책들은 갈갈이 찢어 버리고 영신 서적들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그냥*

<sup>15</sup> “요한은 주님이 어디에서 섬기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 쉽게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하였다”

<sup>16</sup> 카스트로

<sup>17</sup> 카스트로

<sup>18</sup> 카스트로

<sup>19</sup> 카스트로

나눠 주었다..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물건들을 다 나눠 주는 것으로도 부족해 입고 있던 옷마저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모든 것을 주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자 요한은 다시 그라나다 거리로 뛰쳐 나와 행색이 흐트러진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부유하지만,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도 가난한 이 되겠노라 소리쳤다”.<sup>20</sup>

### c) 변화 : 하느님 말씀을 듣고 회심 - 3단계

14. 그 이후부터 천주의 요한의 성소는 분명하여 온전히 가난한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가난해진 주님을 위해 온전히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지만...일부 점잖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땅에서 일으켜...아빌라 신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아빌라 신부는 주님을 따르지 않은 생활에 대해 그토록 엄청난 회개를 한 사람을 보고 반가워 했다...요한 형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힘을 받으십시오. 이제 주님이 당신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 하실 것이니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십시오...신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주님의 자비가 형제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나와 하느님의 강복을 받고 마음 편히 돌아가십시오...천주의 요한은 안심되어 새로운 힘을 찾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모멸 받아 마땅한 속된 사람으로 멸시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였다.”<sup>21</sup>

“어느 두 명의 신사가 이 모습을 내내 지켜보다 요한을 측은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을 떠나 왕립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행하는 치료법은 끝없

---

<sup>20</sup> 카스트로

<sup>21</sup> 카스트로

<sup>22</sup> 카스트로

<sup>23</sup> 카스트로

는 매질을 가하고, 어두컴컴한 지하감옥에 가두어...고통과 벌을 가하여 환자가 광기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은 후 두 줄로 엮은 채찍으로 그를 내리쳤다.”<sup>22</sup>

15. 요한은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 갈망하던 자신의 답을 왕립병원에서 찾게 되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 이성-과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열쇠와 동정의 깊은 우물에 던져진 모습을 통해 요한은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되새겼다: 스스로 똑똑하고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쇠를 건져내고 질병과 가난, 광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인간이 겪는 절망과 고통의 세계를 거친 것이다. 요한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자신처럼...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한 인간이고..하느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처럼 매를 맞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을 내리시어 언젠가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과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피난처로 지내며 내가 돌보고 싶은 대로 보살필 수 있는 병원을 갖게 하여 주소서..”<sup>23</sup>

16.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를 입었다”.<sup>24</sup> 이것이 그가 “실천해야 했던 자비였다”.<sup>25</sup> 그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고통과 운명을 같이 하며 결속을 맺음으로써 그가 그토록 찾고 열망했던 그 길 - 그 방법을 찾은 것이다.

#### d) 일체 : 가난한 예수와 가난한 인류 - 4단계

17. 그는 새롭고 결정적인 길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땀감을 모아다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벌은 돈으로 소박하게 식량을 샀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의 집은 그라나다 광장과 거리의 입구쪽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

<sup>24</sup> 카스트로

<sup>25</sup> 카스트로

희망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낮에 내리쬐는 햇살과 밤에 닥치는 추위를 같이 하였다. 고통과 절망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형제 자매들이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사랑을 위하여 선택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sup>26</sup> 라고 외치며 구걸을 하러 다녔다.

18. 가난한 사람들이 “*문전박대 당한 채 추위에 얼고 상처 투성이인 남루한 모습*”<sup>27</sup>을 너무 많이 보아온 요한은 마음에 깊은 연민이 생겨 뭔가 조속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신실한 사람들 몇 명의 도움으로 요한은 집 한 채를 빌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후 “*가난한 사람들과 시내를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왔다*”.<sup>28</sup>

19. 천주의 요한은 그 병원을 성스러운 장소 즉, 하느님의 집으로 생각하였다. 그곳은 병원-집으로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 위에 햇살을 고루 비추고 계심을 알기에 의지할 곳 없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으며, 그곳에서 손님은 “주인”이 되었고, 요한은 종이 되었다:

“*도시가 크고, 특히 겨울철에 여기는 아주 추운 곳이다...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집을 찾고 있다..우리는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어 불구자, 상해를 입은 사람, 나병, 병어리, 정신병자, 마비환자, 버짐환자, 노인,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도 머물고 있지만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sup>29</sup>

20. 사람들은 놀라와 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맛보도록 그를 포도주 저장고로 보낸 것을*”<sup>30</sup> 이해하지 못하였다. 요한은 “*위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점차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비와 자기희생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도와 주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실망하여 돌아가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sup>31</sup> “무엇을

---

<sup>26</sup> 카스트로

<sup>27</sup> 카스트로

<sup>28</sup> J. Sanchez Martinez. “자아멸절-봉사” 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 여정, Jerez, 1995, p.331,441

<sup>29</sup> 구띠에레 라쏘에게 보낸 둘째 편지 5.

<sup>30</sup> 카스트로

<sup>31</sup> 카스트로

주고 무엇을 해도 그는 부족한 것만 같아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어 조금해 하였다”<sup>32</sup>.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저렇게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항상 구걸을 하는구나..”<sup>33</sup>, “저 사랑은 언제나 자선을 행한 다오”<sup>34</sup> 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울면서 주님께 용서를 간청하였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sup>35</sup> 밤새어 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들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sup>36</sup>. 그래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주어도 그에게는 너무도 미약해 보인 것”<sup>37</sup>이다. 그것은 “너무도 훌륭하고 관대하며 영원히 퍼져나가는 하느님의 자비”<sup>38</sup>로 생활에 젖어 살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없어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다<sup>39</sup>. “주님이 가져 다 준 사랑이 너무도 커서..그는 그 사랑에 취하게 되었다. 누가 그에게 무엇을 청하여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sup>40</sup>, 요한은 “구운 양파나 소박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였고, “바닥에 깔 매트 위에서 돌 베개를 베고 낡은 누더기 담요 한 장을 덮고 잠을 잤다. 가끔씩 계단 밑 움푹 들어간 곳에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관해 둔 이동침대 위에서 자기도 하였다”<sup>41</sup>. 요한은 가난한 다른 형제들과 같이 병원계단 밑 구석에서 가난하게 생활하였던 것이다.

21.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담보로 저당 잡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줄 빛을 빌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담보로 돈을 빌려나갔고 빛은 점차 늘어만 가다 “200 두캇 이상”<sup>42</sup>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필요한 것들과 문제들이...매일 늘어만 갔고...빛도, 가난한 사람들도 날마다 늘어갔다”<sup>43</sup>. 결국 빛이 너무 많이 늘어나 채권

---

<sup>32</sup> 카스트로

<sup>33</sup> 천주의 성 요한 시성 과정 L-52/1.23, f81.

<sup>34</sup> Ibid., L52:1.20,f73v.

<sup>35</sup> 카스트로

<sup>36</sup> 구띠에레 라쏘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

<sup>37</sup> 카스트로

<sup>38</sup> 카스트로

<sup>39</sup>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 괴로워하였다고 카스트로는 전하였다.

<sup>40</sup> 카스트로

<sup>41</sup> 카스트로

<sup>42</sup>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7

<sup>43</sup>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2

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곤 하였다. “내가 너무 많은 빛을 지고 있어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sup>44</sup>. 가난한 사람들과 빛에 내몰리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끔 수많은 채권자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정말로 괴롭다”<sup>45</sup>.

22. 그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빛쟁이와 죄인이 되었다”<sup>46</sup>. 그는 일생 내내 속박과 헌신의 족쇄에서 지냈지만 결코 떨쳐버리려 하지 않았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 빛 장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했던 일입니다”<sup>47</sup> 라고 말하며 페드로 구에레로 그라나다의 대주교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침상에서 내려와 십자고상을 손에 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그는 그 자세로 “예수님, 예수님,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준 하느님께 영혼을 되돌려 드렸다”<sup>48</sup>.

23. 천주의 요한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그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신념으로 진정한 지혜의 선물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음가운데 깊이 뿌리를 두면서, 예수님처럼 가장 차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였다: 종상과 모락을 받아가면서 계층에 관계없이 아픈 사람들, 죄인들, 매춘하는 사람들 을 도왔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운 눈길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경계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뿌려갔으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 호스피탤러티로 결속의 길을 출범시킨 것이다. 왕립병원에 뛰어 들어 예수님처럼 가장 깊이 자리한 인간의 고통에 몸을 던졌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병원에서 그의 형제들인 환자들의 신음과 고통, 절망을 통하여 요한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였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부유하지만 겸손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고 빈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자신을 비웠던”<sup>49</sup> 요한의 갈망과 결단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답을 보인 것이다.

<sup>44</sup> 세째 공작부인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17

<sup>45</sup> Ibid., 8

<sup>46</sup> Ibid., 7

<sup>47</sup> 카스트로

<sup>48</sup> 카스트로

<sup>49</sup> 카스트로

24. **요약** : 천주의 요한은 자신이 벗겨지는 가혹한 일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 준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광기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라나다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과 소외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했던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됨으로써 사람들의 멸시를 몸소 받은 채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들을 위한 빛을 짊어지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였다.

## 2. 전 통 :

### 창립자이신 천주의 성 요한 정신의 승계

#### a) 성령 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 : 첫 수사들

25. 천주의 요한의 선물은 널리 퍼져 나갔다. 그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으며,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했던 자선의 활동에 이끌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구호금을 주면서 그 활동을 도운 은인들이었고, 또한 상당수는 요한과 함께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들었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살면서 예수와 닮은 일을 하는 그 생활을 따랐다. 이것이 바로 수도 공동체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그가 줄 수 있었던 한가지 생활의 규범은 그가 생활하는 방식 그 모습이었다.

26.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요한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와 함께 살면서 그와 같은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고 “육신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여야 하고”<sup>50</sup>, 의심과 불안은 떨쳐버리며 “노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굴러다니는 돌처럼”<sup>51</sup> 살아가는 그들을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요한은 이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열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면서, “고생과 시련에 익숙해야

<sup>50</sup> 루이스 바우띠스타에게 보낸 편지

<sup>51</sup> ibid., 8,9

하며, 행복한 시간과 더불어 불행한 시간들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sup>52</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도록”<sup>53</sup> 하였고, “육신을 억제하고 삶의 시련들을 받아들이며, 굶주림, 목마름, 수모, 슬픔, 고통, 번민 이 모두를 하느님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지 않으면 안된다오. 만일 그대가 이곳에 온다면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견디어 내야 할 것이오”<sup>54</sup>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금욕의 길을 걷도록 하였다. 요한은 이들에게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며, 자주 성사를 하도록 독려했다: “매일 하느님을 바라보며, 항상 모든 미사에 참여하고, 가능한 자주 고해성사를 하여야 하오”<sup>55</sup>. 결국 요한과 같은 생활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교제와 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예수처럼 하느님과 동료 인간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중간 단계란 있을 수 없었다. 요한은 가장 지고한 사랑을 실천하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수난을 기억하시오. 그분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소. 내 아들 바우띠스따여, 그대가 이곳 하느님의 집에 오면 선과 악을 식별하는 가운데 그대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이오”<sup>56</sup> 그러나 생활의 어려움과 충족해야 할 사항들을 숨기지 않았다: “만일 이곳으로 와야 한다면 더욱 순종하며, 여지껏 해보지 않은 힘든 일을 해야 하오.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지 말고, 고되게 일하기 위해서 오도록 하시오.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맡겨지는 법이오... 만일 그대가 이곳에 온다면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하여 견디어 내야 할 것이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시오”<sup>57</sup>. 같이 생활하기 위해 제시한 마지막 조건은 다른 나머지 모든 것에 의미가 되는 것으로, 그의 사랑과 일 그 모든 것의 활력이 되었던 경험에 인생의 목표를 두도록 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오. 그대가 제 아무리 그분을 사랑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오. 하느님께서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계시지 않으니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시오”<sup>58</sup>.

---

<sup>52</sup> ibid., 6

<sup>53</sup> ibid., 7

<sup>54</sup> ibid., 6

<sup>55</sup> ibid., 15

<sup>56</sup> ibid., 10

<sup>57</sup> ibid., 11,13,9

<sup>58</sup> ibid., 15



27. 요한은 형제들이 하느님의 자비<sup>59</sup>를 경험하여 그들의 생활이 사랑으로 가득 차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살피며, 충실하게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였다. 그의 모습과 생활을 통해 ‘형제들에게 그들이 받은 신념과 카리즘으로 확고한 안정감을 전수하였다. 그리하여 얼마지 않아 그라나다 시민들의 눈에 그 모습들이 보였다: “형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거리를 다니면서 그들을 안거나 업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폈다...형제들이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어깨에 부축인 채 병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sup>60</sup>.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 b) 유산으로 전승된 병원 정신

28. 천주의 요한의 첫번째 동반자<sup>61</sup>가 그의 호스피탈리티 정신에 동참하고 이를 전파하였다. 안톤 마르틴은 요한에게 오른팔과 같아, [하느님 사랑의 성모병원 (Hospital of Our Lady of the Love of God)]을 마드리드에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후에는 병원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sup>62</sup>. 안톤 마르틴 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회심한 페드로 벨라스코는 안톤이 과거에 처형이 되기를 원하였던 원수였지만, 요한의 일에 함께 가담하여 그와 같은 생활을 따르다 그라나다에 있는 천주의 성 요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 요한의 자비로운 언명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화해와 호스피탈리티 형제로 아름다운 증거자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동반자들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까이 살면서 호스피탈리티의 증거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요한을 ‘창립자’<sup>63</sup>로 여기며 그의 한없는 호스피탈리티를 본받았다<sup>64</sup>.

<sup>59</sup> 세사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

<sup>60</sup> J. Sanchez Martinez, “자아멸절-봉사

<sup>61</sup> 이들에 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단지 카스트로의 전기 20장에서 안톤 마르틴이 천주의 성 요한의 동반자로 언급이 되어 있다. 역으로 카스트로의 전기에 앞서 쓰인 “심판”에서 천주의 성 요한 수도복의 형제들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으며, Dionisio Celi와 Antonio Govea가 저술한 전기에도 요한의 동반자들에 관해 언급이 있다. 아빌라의 요한 (요한은 서간문에서 그를 ‘앙굴로’라 칭하였다)은 천주의 요한에게 네 명의 동반자가 있다고 하였다: 안톤 마르틴, 페드로 페카도르, 알롱소 레팅가노, 도밍고 베네딕도.

<sup>62</sup> L. Ortega Lazaro, 안톤 마르틴 형제와 그의 병원, 아토차街, 마드리드 (1500-1936), 마드리드, 1981, p.31.cf.17-19

<sup>63</sup> J. Sanchez Martinez, “자아멸절-봉사 참조, TT 8/5;T9/5; T10/5,p.346,356,364.

<sup>64</sup> J. Sanchez Martinez, “자아멸절-봉사 참조, T11/20, p.383: 그들은 가난하면서 아픈 사람이면 이슬람교

요한의 사후 20년이 지나 호스피톨러 정신은 그 빛을 더욱 발하게 되었다.

29. 이 정신은 수도회의 역사를 지나며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리하여 후계자들 중에서 성교회가 성인, 복자, 가경자로 선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성 요한 그란데, 성 리카르도 팜푸리, 성 베네딕도 메니, 수많은 복자들과 순교자들 외에도 시복의 대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프란치스코 카마초, 호세 올랄로 발데스, 유스타스 쿠글러, 윌리엄 가그농) 뿐만이 아니라 수도회 역사를 망라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호스피탈리티를 위하여 브라질에서, 콜롬비아에서, 칠레와 폴란드, 필리핀, 프랑스, 스페인 등지와 최근 다른 여러 국가에서 순교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30. 수도회의 영성은 수도회의 공동체와 사도적 센터를 세우고 또한 재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수되어 왔다: 베드로 소리아노 수사 (이태리), 지오반니 보넬리 수사 (프랑스), 가브리엘 페라라와 지오반니 바티스타 카시네티 수사(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란치스코 헤르난데즈 수사 (아메리카). 근대 역사에는 폴 드 마갈롱 수사 (프랑스), 에베르하르트 하케 & 막노봉 마크밀러 수사 (독일), 지오반니 마리아 알피에리 수사 (이태리), 성 베네딕도 메니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등이 있다. 수도회의 영성은 우리 협조자들에게도 전승되어 사명에 같이 참여하고 카리즈마적 정신으로 함께 나누고 있다.
31. 영성적 가치관은 천주의 요한이 처음 주창한 이래 이 긴 역사를 이끌어 왔다:

**하느님 은총과 자비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용서를 청하며, 하느님이 허락하시어 천주의 요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풍요로이 내렸던 호스피탈리티 은사를 우리 안에 맞아들인다<sup>65</sup>. 천주의 요한은 무한한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스스로 그 자비를 실천에 옮겼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였다. 그는 세쌍 공작부인에게 보낸 글에서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어조로 그 생각을 전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크신 자비의 숨결을 생각하면 선행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한테

---

도, 그리스도인 그 어느 누구도 저버리지 않고 모두 다 받아들였다.  
<sup>65</sup> 이 근본이 되는 점은 초기 회헌에 잘 나타나 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불쌍한 자들에게 주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고 다음으로 우리 동료 인간들의 영원을 위해서 회심하라고 두 팔을 벌려 애원하는 그분께 ..." (세싸 공작 부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 요한이 공작부인에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청한 것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과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셋째 편지 8.90; 세싸 공작부인에게 보낸 둘째 편지 9.19 참조) 감사와 묵상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천주의 요한을 통해 우리는 그가 내려준 특권을 인식하고, 수도회는 우리의 영적인 행로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한다.<sup>66</sup>

자비하시고 동정심 많은 예수를 본받아<sup>67</sup> 우리 호스피탈리티의 근원이자 기원인 자비의 하느님이 구현되고 육화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회헌 20); 예수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고 따른다 (회헌 2c; 3a);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를 보며,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들여 돕는다.

호스피탈리티의 살아있는 최고의 모델인 **동정 마리아에 대한 헌신**: 고통 받는 사람

<sup>66</sup> 천주의 요한 처럼 예수에 관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고통의 사람” (이사야 53,3)인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관상은 우리 영성 생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회헌 33). 이 시점에서 수도회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장 헌신적인 묵상을 하였던 우리 창립자에게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십자가에 수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요한은 예수의 고통과 그를 박해한 적들을 받아들이며 용서하는 그 깊은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 요한은 루이스 바우피스따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된 고난을 기억하고, 악한 이들에게 그는 어떻게 돌려 주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대도 그렇게 해야만 하오” (루이스 바우피스따에게 보낸 편지) 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청하고 있다. 요한은 보속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따라 살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할 것을 청하는 것이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묵상하였던 곳은 아픈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혼미함에서였다.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요한에게는 십자가도, 희생도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의 생활에 넘쳐 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힘 없고 다치기 쉬운 사람들을 더욱 섬기며 보살폈다.

<sup>67</sup> 우리의 영성은 근본이 그리스도 중심이다. 천주의 요한은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에 맞출 것인가를 우리는 그를 통해 배웠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법을 보았다. 나자렛 예수는 몸소 행동을 통하여 그가 행한 사랑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행동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함 (마태오 9,36 참조)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일은 그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마르코 6,34-44 참조). 예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끌려 보살필 때 내부에서 힘이 솟아 나는 것을 경험한다 (누가 8, 40-48 참조);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의 고통과 병을 몸소 안고 그들과 동화한 예수를 묵상할 때 (마태오 8,17 참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다시 새로이 하며, 예수처럼 종의 신분으로 우리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높여주고 옹호한다 (마태오 12,15-21; 20-28 참조).

들 편에 서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보살피며 중재하는 분이다<sup>68</sup>.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조화롭고 폭 넓게 경험**  
 한다.<sup>69</sup>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영적인 일관성** :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방해가 되지 않는 다는 은총의 경험이다.

**호스피탤러티의 발산** : 천주의 요한처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빛을 발하는 강건한 호스피탤러티로 은총을 입어, 새로운 호스피탤러티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토록 이끌어 그들과 함께 카리즘과 영성의 교류를 나눈다. 이 카리즘은 천주의 성요한의 정신으로 세심히 계획하여 양성한 협조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수도회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유일무**

<sup>68</sup> 동정 마리아는 성교회의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봉헌된 사람으로 (봉헌생활 참조) 우리에게는 호스피탤러티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델이다. 천주의 요한은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하여 그분이 살아온 모습을 흠모하고 따랐다. 요한은 마리아를 신봉하였으며, 일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마리아가 함께 하고 보호해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내는 모든 서한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자 없으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하였으며, 그래서 습관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영원히 하자 없으신 동정 성모 마리아”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구띠에레 라쏘에게 보낸 첫째 편지 12). 묵주 기도를 통해 마리아를 묵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자주 이 기도를 바칠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오” (루이스 바우띠스타에게 보낸 편지 17). 동정 마리아를 신뢰하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분처럼 따르려는 그의 소망을 동반자들에게 어떻게 전해 줄지 요한은 알고 있었다. 한 예로, 안톤 마르틴이 “가장 높으신 성삼위 이름으로...복되신 영광 성모 마리아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옹호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성모를 위하는 일에...(L. Ortega Lazaro, 안톤 마르틴 형제와 그의 병원, 아토차街, 마드리드 (1500-1936), 마드리드, 1981, p.8).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수도회 회헌은 우리의 영성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흠송을 반영하였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의 활동에 일생을 헌신한 호스피탤러티의 모범인 동정 마리아 (회헌 42b 참조)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 봉헌의 모델 (회헌 25) 이다. 그분의 모범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순례를 떠날 수 있으며 (LG 58 참조), 힘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 곁을 지킴으로써 지금도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당신 아들의 희생에 우리가 결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헌 34a; 참조 4d). 병자들의 건강과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우리의 의료봉사 공동체의 생활에, 각 형제들 마음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하고 있다 (회헌 34b).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소박함과 준비된 의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헌신을 따르면서, 우리 생활을 위해 하느님이 계획하신 바에 충실하고 (회헌 4c 참조), 효성과 애정어린 아들로써 그분의 축일들, 특히 수도회의 주보 성녀인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리며, 또한 전통에 맞추어 다른 모든 일에도 묵주기도 음송에 전념하도록 한다.

<sup>69</sup> 회헌 1984, 103a

이한 사명이다.<sup>70</sup>

**전문성** : 시대에 당면한 문제와 가능성에 맞추어 호스피탤러티 사명을 진보된 기술과 과학 그리고 자원과 시설에 접목시킨다.

**죽음을 불사한 자아 헌신의 정신** : 천주의 성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한결같이 볼 수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아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리낌없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이라는 것이다. 수도회의 연대기를 살펴볼 때 각기 다른 장소와 시대에서 전염병과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토착화 혹은 호스피탤러티인의 겸손함** : 이것은 ‘호스피탤러티 소수’ 혹은 “자기비움”의 의미로 형제들이 안위한 생활과 큰 것을 바라는 태도를 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 3. 천주의 요한 카리즘의 “시대적 적절성”

함께 나누는 사명과 토착화

32. 천주의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에 이끌려 영향을 받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었다. 이들이 바로 그와 동참하여 함께 보살피는 일을 도운 사람들, 익명의 은인들, 가진 재산으로 요한을 도와준 귀족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한 사제들, 수많은 봉사자들, 의사들, 그 외에도 그와 형제들과 함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준 사람들을 말한다.

33. 천주의 요한과 같은 정신으로 베푼 호스피탤러티의 선물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퍼져 나갔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신앙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승된 카리즘은 놀랄만하게 창의적 모습으로 각 시대마다, 각 처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였다. 천주의 성요한과 같은

---

<sup>70</sup> Ibid., 1984, 103c

정신으로 베푸는 호스피탈리티의 카리즘은 수도회 안에서 수도서원을 한 형제들을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는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수도회의 카리즘, 영성 그리고 사명<sup>71</sup>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환영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힘이 축적된 모습으로, 우리 협조자들이 스스로 사명에 동화되어 우리와 같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야 한다.<sup>72</sup> 이것은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이 매우 복잡하기도 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비의 복음서 선포를 위하여 주님에게 무상으로 받은 것을 기쁜 마음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34. 선교 수사들이 있었기에 요한의 카리즘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런 토착화를 바탕으로 수도회의 카리즘과 사명의 구현이 방인 형제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이는 수도회 카리즘의 순수한 본질은 지켜주면서 선교 수사들의 국가에서 했던 방식은 떨구어 버리고, 각 문화에 맞는 호스피탈리티 봉헌생활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제1세계’ 양식에 따라 도움을 주던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 지역사회-교회적 환경에 맞추어 각각의 현실에 맞게 호스피탈리티를 실현하면서 수도회의 전통 가치인 질적인 보살핌은 보존한 채 과학과 기술로 진보하고, 기술적,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형제들과 협조자들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35. 이렇게 함으로써 천주의 요한의 카리즘이 각각의 현지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풍요로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수도회는 의료적, 사회적 보살핌이 불충분한 곳에서 비판적 양심을 가지며, 누구나,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적 보살핌과 복지제도가 적절히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앞장을 설 것이다.

<sup>71</sup> 봉헌생활 54

<sup>72</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과로 80년대 중반부터 수도회는 우리의 협조자와 계약운동을 시작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성교회도 수도자들의 활동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평신도가 수도회의 카리즘과 선교를 같이 나누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희망으로 가득찬 새로운 장이 수도봉헌을 한 사람들과 평신도 사이에 역사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봉헌생활 54) (회헌 23a 참조).

## II. 근 원 :

### 기본 범주인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36. 수도회는 천주의 요한의 카리즘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 “자비”와 “호스피탈리티”.<sup>73</sup> 이 단어들을 하느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시대에 이 두 용어는 어느 문화에서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인간 가치관이다. 이제부터 수도회의 특정한 영성 주위를 결속시키며 순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점으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 성서적, 인류학적 범주에서의 자비

둘째 : 성서적, 인류학적 범주에서의 호스피탈리티

셋째 : 특히 새로운 회헌을 염두에 두면서 수도회의 카리즘에서 위 두 가지가 지닌 특별한 중요성

#### 1. 출발점 :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죄와 폭력

37. 자비란 무엇보다도 이해와 동정심, 용서를 보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말하며, 죄책감과 죄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화해의 장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히 따르거나, 아니면 그분의 의지에 반하여, 인간 규범에 반하여, 우리가 정한 하느님과의 약속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다. 이렇듯 조화와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고, 평온과 결속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태도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역의 태도는 우리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인식,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책감을 느낄 때 이를 죄악이라 하고,*

---

<sup>73</sup> V.A. Riesco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책감을 느낄 때 “도덕적” 혹은 “윤리적” 죄라 하며,

우리가 가치관의 근본 원칙을 저버릴 때, 양심의 죄, 죄책감이라고 한다.

38. 바로 이런 이유로 죄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죄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하지 않아야 한다. 용서란 - 어떻게 용서하고, 또한 용서 받음을 아는 것- 죄책감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39. 호스피탈리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길을 뻗칠 수 있는 한 개인의 능력이다; 이는 폭력에 대한 반대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가운데 적대감이 있으면 폭력이 있고, 평화로이 생활해 나가지 못하며, 각자가 서로와 타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적인 폭력은 갈등과 몸부림, 퇴보가 앞장서게 한다. 폭력은 우리 안에 있는 최악의 것 (우리의 원죄)에 방아쇠를 당겨 우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든다. 근본적인 폭력이란 모두 전쟁에 나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 가정, 지역, 나라, 종교, 문화에 벗어난 이방인을 향한 적개심을 말한다. 정신의 폭력이 보편화되면, 스스로 문명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여 싸우게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40. 종교적 폭력은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신은 오직 그들 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보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자신들만이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종교는 안중에도 없는” 종교적 이기주의를 낳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종교폭력은 원리주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살인행위로 보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파괴를 가져온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쳐 맞아들이며 호스피탈리티를 보일 때만이 -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는 모습 - 폭력에 대적할 수 있다



## 2. 자 비

### a) 자비의 하느님

41. 구약에 따르면 하느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폭력이 아닌 자비라고 하였다.<sup>74</sup> 자비는 분노를 초월한다: “내가 분에 복받쳐 내 얼굴을 너에게서 숨겼었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이사야 54,8). 다음은 하느님의 구체적인 본성인 자비의 모습을 요약한 말씀이다. (출애굽기 34, 6-7)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이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삼사 대까지 벌한다”*

42. 여기 하느님께서 “*raham*”이라 선포하였는데, 이는 불타는 모성적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다. 이 자비로운 사랑은 상대가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청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비란 선함, 친절함, 인내, 이해와 함께 불충실함에도 용서하는 의지를 말한다.

43. 하느님의 자비는 인간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거슬렀을 때 항상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불신을 가슴에 담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한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거슬렀을 때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예언자들 (에제키엘과 이사야)과 같이 그의 위협은 위로의 말씀으로, 자비의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이사야 40,61).

### b) 자비의 구현

44. 필립비 2,6-11에 보면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

<sup>74</sup>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은 격노한 모습, 심지어는 광폭한 모습으로 가끔씩 비친다. 그래서 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신비를 설명할 필요를 배제한 채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거부하고 야훼만이 유일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권함에 대한 욕망을 제쳐놓은 것이다: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왔다” (루가 22,27; 마태오 22,25-28 참조).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악과 죽음을 기계적으로 무시코 없앤 것이 아니라 이를 스스로 떠맡으셨다. 하느님은 스스로 완전히 나약하게 나타나시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였다. 고통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빵이다. 자비는 하느님의 보속이고, 하느님의 나약함이다. 하느님의 나약함은 인간의 나약함과 상응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용서하는 분이다. 용서를 함으로써, 자비를 베품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내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하였던 것을 행하는 것이다.

45. 신약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보여주었던 훌륭한 용서가였고, 용서를 하는 훌륭한 치유자였다. 하느님의 자비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하느님의 전지적인 속성인 용서를 경험하면서 (마르코 2,7; 루가 15 참조)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예수님은 사람들 매우 깊은 곳, 가슴 깊은 곳, 그 영혼과 그 정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는 일에 모든 생각을 두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치유 그 자체였다” (한나 울프). 그가 용서할 때는 용서 받은 사람 내면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과정을 살도록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폭력이 아닌 자비가 나왔다. 육화란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 (하느님의 자기비움)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폭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하느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여 스스로 약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성자인 절대적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필립비 2,7)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상이고 하느님은 사랑이므로 (요한 1서4,7)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 그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였고, *아빠*를 얘기할 때 주님, 주인님이 아닌 친구로, 지배자가 아닌 종으로 말하였다; 그는 본질적인 것을 똑똑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하였다 (마태오 11,25; 루가 10,21).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물줄기는 폭력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권고하였고, 일곱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열심히 권하였다! (마태오 18,22). 예수님은 우리를 잔

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종교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폭력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46.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오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로이 무조건 주는 것이 하느님에 대하여 놀라운 특성중의 하나라면, 자비는 특히 하느님을 우리와 가깝게 해주고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느님은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뿐 아니라, 용서할 때 자비의 선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분이다. 자비로운 모습 이것이 하느님의 특성이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낸다: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루가 5,21; 마르코 2,7). 예수님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최전선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하느님 아들의 육화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이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이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1,3),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에페소 2,4).

47. 예수님은 그가 구현한 자비가 달을 때까지 우리 인간, 특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죄수들과 그 외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마태오 25,34-45) 자신을 동일시 여겼다. 하지만 그는 자비를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탄원하였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마태오 27,46). 그러나 성자의 기도는 부활로 응답되었다. 그는 성부 마음 깊숙이 자리한 사랑으로부터 부활하게 된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시편2,7; 히브리서 1,5). 예수는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 c) 수도회 카리즘에 깃들어 있는 자비

48. “자비”는 천주의 요한<sup>75</sup>과 수도회<sup>76</sup>의 카리즘은 물론 영성에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sup>75</sup> Cfr V.A.Riesco,

<sup>76</sup> 회헌에서 “우리 의료봉사 수도회는 요한이 일생을 바쳐 보였듯이 자비의 복음서(마태오 8,17;25,34-46)에서 탄생하였다 (회헌 1); 그 정신으로 봉헌된 형제들은 자비롭고 동정심을 가진 예수님과 모습을 같

우리는 성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자비의 모습을 추구한다.

시발점 : 천주의 요한 스스로 그리고 우리 각자 하느님의 자비를 몸소 겪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였기에 우리도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하느님 자비의 숨결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sup>77</sup> 우리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준비되었고, 또 봉헌된 사람들임을 자각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하고 자비를 보이고 싶다”; “영원한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성적 사랑을 본받고자 한다 (회헌 4b.c).

우리의 영신적 목표는 “환자들과 구호 대상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나 보다 진지하게 재현하고 자비의 행위로 그 마음을 드러내도록 갈구한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약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 삶이 “그들에게… 하느님 왕국의 도래에 대한 표징이며 선포” (회헌 3)가 되도록 한다.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우리 내부에서 더욱 거세지도록 일구어내야 한다.

초창기 순간부터 이렇게 특성화된 우리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덕목으로 말할 수 있다: 겸손과 인내심, 책임감 있는 봉사와 인격에 대한 존경과 성실성, 그리고 이해와 자애, 극기 및 고통 받는 사람들의 근심과 소망을 함께 나눔.” (회헌 3b)

### 3. 호스피탈리티

49. 수도회는 전통적으로 “호스피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 용어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시대에 새로운 도덕관의 기본 범주에 이 용어를 넣기도 한다.<sup>78</sup> 우리 수도회의 특정한 영성이

---

이하며,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에 참여하여 나자렛 예수의 자비로운 현존이 시대마다 살아있게 한다 (회헌 2)

<sup>77</sup> 세째 공작부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

<sup>78</sup> Daniel Innerarity, 호스피탈리티의 윤리, ed. Peninsula, 바르셀로나 2001

이것을 중심 축으로 돌고 있으므로 이 표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a) 호스피탈리티는 무엇인가?

50. 호스피탈리티는 손님과 주인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손님과 주인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어 한쪽이 없다면 다른 한쪽도 있을 수 없다. 손님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나 언제든지 나타나서 호스피탈리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호스피탈리티가 있는 곳에서는 주인이 손님 오기 전까지 그 역량을 보이지 않다가 손님이 나타나면 그를 향해 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맞아들일 의무).
51. 왜 인간은 사람들을 극진하게 맞이할까? 그 이유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호스피탈리티 관계에서 손님 된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또 주인은 손님 맞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지라도 주인이 손님을 맞을 의무가 도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자의적인 것도 아니다.
52. 호스피탈리티의 근본적인 특성은 맞아들이는 것이고, 손님을 알아보며,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과 맞이함에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호스피탈리티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손님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손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실제 손님으로 볼 수 있게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실제 손님이거나 실제 주인이다. 마치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양 어떤 손님에게 어디 출신이며,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손님의 익명성을 보호해주는 것은 각 손님에게 있는 인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지나다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임무이다. 그 사람의 이름과 출신, 혈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며, 전 세계를 향하여 호스피탈리티의 손길을 뻗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호스피탈리티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정책을 말한다. 손님을 어느 특정한 한 개인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자리한 대사로 맞이하는 것이다. 인간은 단체와 공동체, 사회, 국가를 구성하고 있고, 각 사람마다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호스피탈리티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낯선 이, 이방인, 다른 사람, “내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맞이하는 일을 직면토록 하고 있다. 호스피탈리티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 즉 손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손님이 우리와 다를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탈리티는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 즉 손님은 신비에 싸여 있는 존재이다. 신성한 분위기가 손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손님이 신일 수도 있다. 신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와 성서, 여러 다른 문화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다. 신은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오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다 (히브리서 13,2)고 하였다. 이것을 호스피탈리티 권한에 대한 종교적인 구속력을 말한다: 즉 이방인의 방문을 신이 방문한 것으로 여기어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손님의 모습은 애매모호하게 싸여 있고, 불확실한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작용한다. 그것은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있는 곳이다. 손님은 두 다른 영역간에 목상할 수 있는 상징이 된다. 손님이 들어오면 두 가지 다른 질서간의 만남이 이루어 진다. 즉, 성스러움과 원거리, 무경계와 인지를 초월한 질서간의 만남이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만남이 때로는 원래의 질서를 깨고 들어와 익숙한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때로는 헤아릴 수 없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호스피탈리티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 사건은 예견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언제 일어날 지, 누구와 일어날 지 알 수가 없다. 손님이 가장 예측하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인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호스피탈리티의 모든 만남은 각자 특별하며, 어느 특정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는 손님 혹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이행하거나 해석하여야

한다. 손님과 주인의 임무는 일반적인 임무이나, 특정하고 한정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특성에 관계없이 인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에게나 관심과 보살핌으로 주어진 임무를 기꺼이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는 주어진 사람의 특정한 관점에서 항상 일어난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딱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다른 모든 손님은 거부한 채,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손님으로 기대하는 주인은 호스피탈리티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 b) 목시적인 차원에서 호스피탈리티

53. 유대-그리스도인 계시는 호스피탈리티의 사건에 특히 민감하다.<sup>79</sup> 두 종교 다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어떻게 맞아 주셨는지 시작하고 있다: 하느님은 손님을 위해 일하였고(*하느님은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 나게 하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창세기 2,8-9, 15-17). 목시록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사람을 맞아야 할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요한 목시록 3,20).

54. 호스피탈리티는 인간을 하느님의 손님으로 만들어 주었고, 하느님을 인간의 손님으로, 또한 인간이 서로간의 손님이 되도록 해 주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의 손님이었다. 아브라함과 그 후 이집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만나의 땅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하느님의 손님이 되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이다*” (레위기 25,23; 시편 23,5;27,10).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손님으로 마므레 계곡에 있는 그의 장막에서 지냈다; 그리고 광야를 질러 다니는 사람들의 손님이 되어 만남의 장막에서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을 채웠다*” (열왕기상 8,10-11). 호스피탈리티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서로가 서로의 손님임을 보고 깨닫게 하였다. 아브라함과

<sup>79</sup> Pagadut, Be hospitable, Claretian Publications, Quezon City, 필리핀, 1992

모세는 외국 땅에서 낯선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이란 서로에게 호스피탈리티를 베풀도록 태어났다는 것이다.

55. 호스피탈리티는 누구에게나 어려서부터 주어지는 환대이다. 호스피탈리티는 거처나 집에서, 마을에서 나라에서 주고 받는 것이다. 호스피탈리티는 손님을 단지 맞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갖는 관심분야 영역에 그 손님을 받아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피난처가 되고, 깊은 내면에서 존중하여 주며, 한 인간으로 그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이 필요한 바를 충족해 주는 것도 ‘포함’한다.

56. 구약에서 호스피탈리티의 모범은 세 남자를 맞아들인 아브라함, 서로간에 호스피탈리티를 베풀었던 과부 자레파트와 엘리야 그리고 예리고 출신 창부로 여호수와의 사절을 맞아들인 라합, 레위사람과 그의 처를 맞아들인 노인 (판관기 19) 그리고 대천사 라파엘과 롯을 맞아들인 토비아라고 할 수 있다.

57. 신약에서는 호스피탈리티가 그 전성기를 맞이하여 호스피탈리티에 관한 내용을 풍부히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로 맞아들여 섬겨주었고, 우리의 존엄성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우리와 함께 동화하였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하느님의 성사이다. 루가복음에서 묘사하였듯이 호스피탈리티의 진정한 길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호스피탈리티도 환영한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몸 안에 맞아들인 마리아의 호스피탈리티, 몇 명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마르타, 마리아, 자캐오 등의 호스피탈리티도 환영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 아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연대와 사랑, 봉사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호스피탈리티의 보고이다.

58. 호스피탈리티를 가장 잘 나타낸 그리스도의 비유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대답하였다.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다시 이렇게 되물었다: “이 세 사람 중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루가 10,36). 예수님은 이웃이 있느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



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이웃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율법학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그 스스로가 이웃이 되어 자비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는 호스피탈리티와 자비가 함께 융화되어 녹아 있다.

### c) 우리의 아버지 천주의 성 요한의 호스피탈리티

59. 천주의 요한은 전 생애를 걸고 자비로운 호스피탈리티의 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 위대한 인류학적, 성서적 목표를 실행하면서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고 차별 없이 보살피는 호스피탈리티를 더 강하게 느낀 것이다. 천주의 요한에게 호스피탈리티는 자신의 존재 이유 그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을 이 점에 비추어서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놀라운 때론 이해의 벽을 넘어서 깊은 심연의 카리즘인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그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의 시간을 온전히 바쳤고,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다.

60. 요한의 호스피탈리티는 아픈 사람들을 형제로, 이웃으로 맞아들여 보살피는 것이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언어로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충분한지 살폈고... 온 몸이 지쳐도 밤이 되면 방 곳곳을 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핀 후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마음으로 영적으로 평안하게 해 주면서 모든 것이 다 평온한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sup>80</sup>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일이 요한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었다.<sup>81</sup>

---

<sup>80</sup> 카스트로

<sup>81</sup> ...그리고 어느날 그가 부엌에 들어가 손뼉을 치며 성가를 부르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가 있었다. 그 증인에 따르면 :”오늘 기분이 좋으시군요”라고 하자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다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증인 30. Gomez Moreno, p.214). 이 증인은 그곳에 자주 찾아가 요한이 일하는 모습,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며 씻기고 침대에 눕혀주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광경은 사랑과 자비가 놀랄 만큼 넘쳐 나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이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습 같아 보였다.

61. 요한이 보인 자비는 매우 창의적이다. 이런 모습은 그의 병원에 관한 설명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이 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라,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 들여 선천성 중증 불구자와 장애인, 나병환자, 청각 장애인, 정신병자, 마비환자, 버림환자, 노인, 아이들로 가득했으며, 여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의 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sup>82</sup> 사도직 활동이 되어버린 구호금을 구하러 다닐 때도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스스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깨우쳐 주는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한없는 사랑에 제외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위하여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62. 천주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와 동화하여 자비의 선지자가 되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동정심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었다. 예수님처럼 그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 가르쳤다. 그는 직위를 갖거나, 무엇을 운영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선물을 통해 선한 일을 하며, 밤에는 긴 시간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환자들을 찾아가 많은 인내심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위로가 되어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 충족해 주는 생활을 하는 것 뿐이었다. 예수님처럼 그도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다. 예수님처럼 그는 단 한가지 계명을 삼았는데, 그 계명은 훗날 빛을 발하여 사람들과 수도회 활동에 그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성문화되었다.<sup>83</sup> 요한의 생활방식을 따랐던 형제들은 그를 통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 수도회 회헌의 모태가 되었고, 창립자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호스피탤러티의 모범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 병원에서 기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비의 마음을 지닌 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들의 머리와 손톱, 발톱을 자르도록 한다. 그대로 두면 건강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들의 손과 발을 씻기고, 필요하다면 따뜻이 데워 준비한 물로*

<sup>82</sup> 구띠에레 라쏘에게 보낸 둘째 편지 5

<sup>83</sup>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많이 사랑하여도 그가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바우띠스따에게 보낸 편지)

목욕을 시키도록 하였다. 씻기는 일이 끝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모자나 천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깨끗한 이불과 베개로 마련된 잠자리에 눕힌다.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이것이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방법이다.”<sup>84</sup>

#### d) 회헌 및 수도회 문헌에 나온 호스피탈리티

63.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성소의 근본은 “복음서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구현하면서 “나자렛 예수의 자비로운 현존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sup>85</sup> 나자렛 예수는 우리 영성의 “뿌리이자 면류관”이다.<sup>86</sup>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형제들은 수행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맞아주는 일이다. 예수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왕국의 평화를 건네 주었고, 악하고 질병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다.

64. 회헌의 목적은 수도회의 새로운 영성이 새 시대에 맞도록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진정한 헌신과 변화 없이는 공의회가 요청한<sup>87</sup> 쇄신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 쇄신의 과정에 수도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택을 하였다 :

인간화된 보살핌 : 수도회의 근본 목적은 아픈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회헌 10d; 12c; 23a; 28b; 43d).<sup>88</sup> 호스피탈리티를 실행하는 사도직은 그러므로 인간화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수도생활에 인간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형제들

<sup>84</sup> 1587년 회헌 17

<sup>85</sup> 회헌 2c, 3a, 5a

<sup>86</sup> 회칙 22; 회헌 20 참조

<sup>87</sup> 쇄신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면이 있다: 첫째, 우리 생활가운데 취약한 점들, 우리의 형제적 친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의 ‘강점’을 찾아내서 성부와 성자간에 존재하는 일치와 비슷한 일치를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sup>88</sup>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 문화나 기관, 사회계층, 종교, 인종 등을 떠나 차별 받지 않고 보살핌과 관심,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 싶은 욕구이다.

의 인간적인 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한다: .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호스피탈리티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그 카리즘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다.

*호스피탈리티 성소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 것으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카리스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형제애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천주의 요한은 스스로 모든 사람 즉,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필립 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형제라고 하였다.<sup>89</sup> 형제애의 유대를 만드는 것은 수사들의 구별되는 특성 중의 하나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 주고 호스피탈리티의 직분(45b; 46b.c; 23)과 의료인들, 봉사자와 은인들, 생명을 섬기고 육성하면서 성스러운 계약으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sup>90</sup>

호스피탈리티는 아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서비스에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며 인간화*의 관점(회헌 5a)<sup>91</sup>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4. 이 시대에 맞는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 외부인과의 관계

##### a) “이방인들”과의 관계

<sup>89</sup> 요한이 궁전에 이르자 그를 알고 있던 텐딜라 백작을 비롯하여 다른 귀족들이 황태자에게 요한이 왔다는 것을 알렸다. 요한은 들어와 황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안에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카스트로)

<sup>90</sup>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생명을 섬기고 육성하는 일에 함께 하는 수사와 협조자들, 로마, 1992.

<sup>91</sup> 1980년대에 수도회는 인간화 운동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본래의 욕구와 새로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 나섰다. 1981년 관구장 회의에서 그 결론을 보면 흥미롭다: “본 회의를 통하여 수도회는 지속적인 쇄신에 희망을 갖고 헌신할 것을 재 다짐하였다. 이것은 수도회 내 모든 사람 각자가 의료봉사 수도회의 봉헌된 수사로 충족해야 할 일들을 항상 염두에 두며 생활할 때, 그리고 성교회와 사회가 우리에게 거는 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세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개인의 가치관이 요구되기도 하고 부수지기도 하는 때임을 명심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수도회의 카리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확실하게 헌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나는 이 역사적 길목에서 나자렛 예수로부터 받은 인간화가 우리를 일 치시키고 융합시키는 고리가 되어 쇄신의 과정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와 준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피에르루이지 마르케시, 인간화, p.89-90)

65. 호스피탈리티와 자비는 사람들과 이웃,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외부 현실은 친구(친교!)일 수 있고, 적(적대감!)일 수 있으며,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방인일 수 있거나, 고통의 경험을 한 우리 자신의 신체일 수 있거나,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한 생소함일 수 있다. “다른 사람”, “친구”, “적”, “이방인”, “외부인”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기쁨, 환영, 연대감, 불안, 두려움, 호기심,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와 대적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고, 동시에 우리생활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깨우쳐준다는 점에서 이끌린다.
66. 우리의 환경, 우리의 영역밖에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해있는 것이면 모두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다. 그것은 우리가 접하지 않은 이질적인 것으로, 우리와 상반되고, 우리에게 보통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 것”,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이상하고 낯선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우리는 두 의미간의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속할 때 낯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낯설고 이상한 것을 판단한다. 바로 그래서 손님이란 와서 가버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머물고 가는 여행객인 것이다. 손님은 경계선을 차지한다. 그를 맞아들이는 주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양자간에 차지하는 공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곳이다.
67.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밖에 있는 것은 낯설거나 이상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만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시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시간과 삶의 방식을 조화시키며, 내 시간과 다른 사람의 것을 조화시킨다는 의미이다. 호스피탈리티는 다른 사람들의 공간적 환경을 존중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자기만의 시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대개 다른 사람들이란 불편한 존재이고, 우리를 귀찮게 하며, 우리를 앞으로 혹은 뒤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느리거나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낯설거나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시간의 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방인이란 우리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시간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공간적 표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스피탈리티가 “시간 낭비”의 능력 혹은 “우리 시간에 헌신”하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68. 외부인 - 시간적 혹은 공간적 차원 - 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예상치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낯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다. 이는 미래의 의문에 대해 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낯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기에 던져 넣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끌리면서 위험스러운 것이다. 낯선 것에 대한 문화적 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가능한 선택들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며,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와 가진 것들에 대해 도전을 던진다는 것을 언제나 전제로 하고 있다. 낯선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위치의 한계를 정하고 가치를 높이며 수정하는 여력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듀크 하임 (Durkheim)은 문화의 도덕적 자질은 외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의 관점에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응으로 보이는 것을 언제나 능가한다.

#### b) 호스피탈리티와 자비의 견습

69. 이런 관점에서 이해된 호스피탈리티와, 사랑이며 비폭력을 말하는 자비는 인간의 근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자아발견은 내부 주관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안다. 대접을 받는 손님으로 혹은 맞아들이는 주인으로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이것은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해준다. 개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 혹은 승인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인격체가 된다.

70. 메를류 폰티 (Merleau-Ponty)는 이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자신을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자신인양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동질이 아닌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호

스피탈리티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해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고, 존중하며, 그들의 특성을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우리는 호스피탈리티와 자비를 배울 수 있다.

71. 요즘은 여행하기가 매우 편리하여, 사람들은 다른 것, 낯선 것을 점차 더 많이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민 가는 사람과 이민 오는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세계화 되고 있는 사회, 또한 세계화 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다민족문화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보고 경험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 낯선 이들에 대한 인내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동종그룹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명쾌하게 정의되고, 정해진 현실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되고, 처음에 우리에게 낯선 것들이 우리 환경가운데 들어와 익숙하게 된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놀랐다.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요구 때문에 생겨난, 혹은 어떤 사회적 질서에서 자라난 모든 배제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민감함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는 사회일원이 가지고 있는 ‘중력’을 상실하였다. 현대인들은 영역이라는 “무게”에 전보다 덜 속박되고, 통제하기가 더 쉽지 않다. 현대인들은 더 느슨하게 생활하며, 더욱 상호 의존적이다. 이들은 단 한번에 정의를 잘 내린 양 정체성에 강조를 거의 두지않는 시나리오 안에서 살고 있다. 요즘은 “복합 정체성 (Complex Identity)” (Amin Maalouf)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낯선 이방인과 외부인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72. 이 세상이 정도가 벗어났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수는 늘어가고만 있다. 인간을 거룩하게 보아야 할 관점이 현대 사회가 굽실거리고 추앙하는 우상 앞에 그 길을 내어주고 있다. 사회가 (대중매체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교육은 호스피탈리티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 생활에 더 큰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구조는 마약과 포르노의 불법거래, 자유연애, 이로 인한 성 (性)의 존엄성 상실, 더 심각한 빈곤과 부정, 수많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수천명의 인명이 고통

을 받는 일과 같이 인간의 길을 벗어난 현상을 예방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갖추어 지지도 않았다. 인간성의 타락으로 생태계의 파괴 (석유정제, 유전자 조작, 섬유, 음식, 주류 산업으로 인한 광업, 공기오염이 수질, 해안, 수산자원을 파괴)와 환경파괴 (자연 약탈, 자원 고갈, 생태계 균형의 파괴 위험)가 이어지고 있다.

73. 호스피탈러티를 실행하는 우리의 능력은 인구폭발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 인구는 매일 22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성장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른다. 즉, 가족이 그 뿌리를 잃게 되고, 도시화가 확산되며,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느라 이용 가능한 자원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착취당하고 있다. 동족살상 전쟁, 무방비상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순진한 아동착취,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간격을 더 넓혀가는 무자비한 자본주의를 볼 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거룩한 생명의식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30%의 세계 인구와,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 못하고 빈곤의 굴레에 운명 지워진 70%의 세계인구간의 불균형은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빈곤층의 문화는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고, 그나마 자본발달이라는 외부의 방식에 이끌리고 있다.

74. 우리와 유사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맞아주고 감사하며, 섬기고 연대하는 (호스피탈러티!) 이들의 태도는 자원단체, 비정부조직 (NGO), 여러 수많은 사회복지단체, 평화유지군, 정의와 생태, 인간의 존엄성 및 이국적인 것을 배척하는 모든 유형에 대한 거부 운동 등 수많은 기관과 새로이 착수하는 일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호스피탈러티의 소중한 전통을 가장 귀하고 높은 인간 가치관으로 삼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폭력과 전쟁, 범죄와 테러가 너무도 위협적이어서 호스피탈러티의 가치가 정면공격을 당하는 불안정함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본적인 방어가 필요하며, 호스피탈러티의 전통 가치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묵직한 전통을 지닌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의 형제들이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수도회는 시대에 보조를 맞추면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수도회의 특징적인 성소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직을 통해, 전문성과 진보된 기술 그리고 인간화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연대하여 치유하는 태도와 행동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



### III. 영성의 길

#### “현 시대” 천주의 요한의 길 따라가기

##### 1. 오늘날의 영성

75. 성 교회는 -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 영성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삶과 존재의 의미가 되고 안정감을 주는 그리스도의 신비, 성령의 신비에 대한 결합이 모두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영성에 목말라 있다. 성 교회는 영성의 다른 양식을 통하여 영성에 대한 목마름에 길을 터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76. 요즘은 영성이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종파간의 대화가 이 분야에 엄청난 결과를 자아냈다. 그러나 동시에 영성을 지역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지역 유럽지역으로 나뉘어 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영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영성은 신체와 정신, 개인과 지역사회 혹은 사회,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지역 종교적인 것과 초교파적인 것 등과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우리 수도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수도회도 우리가 받은 은사에 보답하는 세계화 된 영성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의 독특한 영성은 세계 각처에서 지역의 특정한 특성에 맞추어 그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77. 우리는 영성을 하나의 과정, 하나의 길로 보고 있으며, 여러 단계로 나눈다. 우리 회헌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알려준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영성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성령은 우리 “내부의 선생”으로, 사랑의 완성, 성스러운 계약의 완성, 하느님과 동료 인간 그리고 우주와의 일치를 이루는 완성의 길로 인도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라는 글에서 니짜의 성 그레고리오 말씀이 더욱 적절하게 느껴진다:

“미덕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악덕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경계선으로 표시된 것은 미덕이 아니다. 미덕의 관점에서 덕을 완성하는데 제한이 되는 한가지는 바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항상 미덕의 길을 재촉했던 사도는 길에서 머뭇거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항상 돌진하는 모습을 보인다...아마도 인간 본성의 완성은 더 위대한 선을 성취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78. 성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와 동일한 인식을 보였다:

“소박한 일상 생활 안에서 봉헌생활이 이 세상과 주도적인 문화에 하나의 선택적인 삶을 선포한다...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리면서 봉헌생활을 하는 새로운 세대의 적극적인 모습 이외에도 연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봉헌 수도자들의 드러나지 않지만 결실을 맺은 이들의 모습도 특히 중요하다. 이미 부여 받은 봉사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지혜 외에도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아픈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육, 그리고 성교회에 특별하고 소중한 기여를 한다. (참조 골 1:24)”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이 시작 no 6).<sup>92</sup>

## 2. 영적인 길의 방법론 혹은 모델

79. “우리의 호스피탈리티는 우리 창립자께서 충실하게 따르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바친 나자렛 예수의 삶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회헌 20). 그 삶은 바로 우리의 창립자가 헌신적으로 따르며 전 생애를 바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구원에 전념한 인생이었다 (회헌 1a). 이제 우리가 그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은총과 믿음, 인간 고통에 민감한 그 마음, 사람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그의 겸손함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sup>93</sup> 그가 걸어간 영적인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학적 제안으로 우리가 내면에서 호스피탈리티의 카리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도 요한처럼 거대하고 복잡하며 세계화 된 길목에서

<sup>92</sup> no 10도 참조: 이제는 성령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박차고 나올 때이다. 봉헌생활의 다양한 양식의 카리스마적인 차원은 항상 진보를 이루면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

<sup>93</sup> 총본부 문헌, 천주의 성 요한은 살아계시다, 로마, 1991, pp.12-13

길을 떠나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으로 향한 그의 내적인 순례, 영적인 길, 그것은 바로 사명과 친교 (회헌 5), 즉, 영성의 집이자 영성의 학습소가 되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80. 천주의 성 요한이 거쳐간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비움 - 부르심 - 변화 - 일체. 이것은 우리도 역시 거쳐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재생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직선상이 아닌 나선형 단계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천주의 요한은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비우고 (자기비움) 또 비움으로써, 비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필립비 2,6-11 참조)

#### a) 비움의 경험 : 완전히 탈바꿈한 “새로운 탄생”

81. 여행이란 한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말한다. 길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길을 떠나게 되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마치 제 집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천주의 성 요한 형제들이므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82. 이 경험은 성서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처음에 모세는 이집트인의 지혜로 삶을 보았다. 그러나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그 백성들의 삶을 야훼가 이끌고 있음을 조금씩 깨달아간다. 그래서 현재가 주는 안락함과 우상 신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광야와 강들보다 더 강하고 더 거친 모든 장애물들 (정신적인 장애물들과 감성들- 두려움, 용기상실, 약속된 미래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일)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막을 세우게 하신 오직 한 분의 진실된 하느님을 맞아들였다.

83. 영적인 길은 이 세상과 현세의 삶이 주는 한계를 초기에 경험 함으로서 시작이 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임을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보게 된다. 우리가 보

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역사의 의미를 찾아 보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일부이거나, 때로는 모순적인 답을 찾게 된다. 가장 유망한 것이 나중에 보면 실망이고 망상으로 나타난다. 애정의 결여, 좌절감, 실망과 실패 (가족, 우정, 학업, 실패로 돌아간 계획...)로 인하여 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치관의 본질에 대해 자문하게 되며, 우리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가장 크게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 깊은 심연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불충분 할 뿐이다: “오, 주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편치 않나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 한들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루가 9,25). 부르심에 대한 경험, 성소에 대한 경험이 인생 변화를 위한 첫 단계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강력하여, 다른 소리는 모두 잠잠케 한다. 그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더” 나아가게 하며,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 위태롭게 하신다.

84.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것을 경험한다.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였기에 이 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때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혼돈을 겪는 순간이며,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가능성을 달아버리는 듯한 죽음 같은 경험이다. 자신을 버리는 경험은 용기를 잃게 하고, 현실에 대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하며, 우리가 삶을 주도하여 살아가지 않고 삶에 이끌려가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 두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거두어 들이라는 경고 사인으로, 적어도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있는 질문들과 자극들이 비록 조용히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게 하도록 한다.<sup>94</sup>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맞아들이며 인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서 피상적으로 위로 받지 않는 경험을 통해 재창조 혹은 내적인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된다.

85. 이것이 바로 예수의 테레사가 말한 영성의 첫 번째 두 가지 단계라고 불렀던 것으로,

<sup>94</sup> 이것이 바로 천주의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요한은 인간의 뿌리가 없음을 깨닫고, 오로페사에서 백작의 말과 양을 돌보는 양치기의 생활을 접어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내면으로부터 울리는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토록 헐벗고 굶주리는데 오로페사 백작의 마구간 안에 있는 말들은 얼마나 잘 먹고, 보호 받으며 건강한 지를 생각하며 슬퍼하였다.” 요한은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요한, 농장 동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주고 보살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카스트로)

십자가의 요한이 가르멜 산에 오르는 시작이라고 하였던 단계이다. 천주의 성 요한은 이것을 죽음의 세상에서 탈출구가 없는 죽음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은 또한 영성 생활의 첫번째 단계로, 아빌라의 요한-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 지도자-은 육신과 악이 되는 세상의 언어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단계라고 말하였다 (“*Audi, filia*”, 1A).

**b) 평생 지속될 “부르심” : “들어라, 내 아들이!”**

86.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해 신비로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성령의 힘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성소의 경험은 “유혹을 받는”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과 비유가 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지름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길을 바꾸어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87. 이 부르심은 처음에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게 일어난다. 행복한 일과 낙담의 순간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간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사람의 심연을 울리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층을 뚫고 우리에게 전한다: “듣거라 아들이, 너의 귀를 열어라”. 자신의 깊은 열망에 반하여 불일치나 대립을 하면서, 혹은 조화를 이루면서 나자렛 예수의 삶을 통해, 성부를 향하여 그리고 그의 동료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단조롭고 반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깨고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변하고 싶은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
88. 신비의 이끌림은 완전히 초월의 상태나 고립된 상태 혹은 하느님과 친밀한 기도시간에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끌림은 천주의 요한의 생애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멸시 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존재 심연에 도전이 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의 그리스도

를 발견한다.

89. 부름 받음, 즉 성소는 판별이 필요한 단계로, 영적인 성취와 지지 그리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다. 이 단계에서 영성 생활의 지도자들은 “여정의 시작”, 혹은 세 번째 영적 단계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엄청난 고행의 노력을 하여 하느님이 제안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90.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이는 첫 번째 부르심보다 더 깊이가 있으며, 더 깊은 본질을 나타낸다. 우리는 정신을 변화할 부르심을 느낄 때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순간이며, 내면에서는 새로운 선교개척자로 파견되고 싶은 내적인 욕구를 갖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처음 반응에서와 같이 아주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영적인 길은 막히고 만다.
91. 영적인 길의 입구는 분명 성소이지만, 반응이 함께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반응은 기도와 겸손한 순명 그리고 봉사를 통해 나타낸다. 아빌라의 요한은 “으뜸가는 말씀...절대적 진리이신 유일한 하느님” (Audi, Filia, I.B)1.), “믿음으로” (Audi, Filia, I.B)2.) 라고 기도하였다.

### c) 변화와 봉헌

92. 천주의 성 요한과 같은 방법으로 살도록 하느님이 부르고 계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우는 삶을 향해 성령에 의해 준비되고 변화하며 봉헌된 사람처럼 신비하고 점차적인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93. 천주의 요한에게 하였듯이, 하느님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인류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일깨워 동정과 자비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고 맞아주도록 하며, 따뜻함과 연대감, 형제애를 강화시켜 주신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호스피탈리티안에서 형상화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면서

우리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성부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정결과 청빈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안에서 나자렛 예수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 나가며 고통 받는 인류가운데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해준다 (회헌 1d; 2b; 7b).

94.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수도 서원의 전례행사에서 거행되고 맞아들인다 (참조 ET47; 회헌 9a). 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생활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봉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95. 그러나 봉헌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남은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이 안에서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이 다시 한번 인생의 위대한 주창자가 된다. 영성 생활의 선각자들은 한 고행의 단계에서 좀 더 신비스러운 고행의 단계로 변화되는 이것을 네 번째 영적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천주의 요한은 이 단계를 홀로 묵상하며 보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면서 신비로운 묵상과 함께 실천하였다. 그는 인간이 겪고 있는 절망에 다가감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여겼다. 이것이 우리 역시 가야 하는 지속적인 봉헌의 길이다. 아빌라의 요한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취하며, 악의 세상, 심지어는 고향까지 떠나 잊어버리도록 가르쳤다.

#### d) 가난하고 소외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예수와 신비로운 일치

96.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일은 이 생애에서 결코 끝남이 없다. 이것은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단계에 앞서 “신비로운 결합” 완전한 공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화 혹은 변형의 단계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갈라디아 2,20). 성령이 우리 안에 호스피탈리티 모습으로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복음서에 나타난 동정심 많고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다 (회헌 2).

97. 영성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삶에 비밀스럽게 내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모든 욕망을 초월한 것이다. 이 시점까지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겪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를 영성의 대가들은 “마지막 영적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산의 정상에 오름”이라고 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신자의 영혼이 앗아가는 기회라고 하기도 한다 (*Audi, Filia*, VI).

### 3. 하느님 백성의 길에 참여하기

98. 우리의 카리스마적, 공동체적, 개인적 영성의 길은 하느님 백성, 성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길에 놓여 있다. 성교회의 영적인 길이 전형적이고 모범적이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곳은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이다. 이 길도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전례력의 전례-성사 주기는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환경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접할 수 있게 된다. 모체가 되는 성교회의 말씀을 매일, 매주 접하는 것은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이며, 성령의 길로 가는 최고의 인도자이다.
99.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례는 성교회 활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상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따라서 전례, 특히 성찬식을 통하여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끝나는 날까지 성교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신성함이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성취가 된다”.<sup>95</sup> 이런 이유로 전례의 차원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성부에게 바친 예수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회헌 7c); 이것은 또한 호스피탈리티 가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표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sup>96</sup> 전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새로이*

<sup>95</sup> SC 10.

<sup>96</sup> “성찬을 통하여 예수는 성부에게 바친 빠스카로 우리와 일치될 이룬다. 우리도 제사를 바치며 또한 우리를 바친다. 수도봉헌은 그 자체가 성찬의 모습으로, 성찬의 희생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성



해준다 (회헌 30);

성합속에 있는 예수님의 실존과 성찬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호스피탈리티 양성소<sup>97</sup>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준다. 성찬의 호스피탈리티는 카리스마적 호스피탈리티의 근원이다.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호스피탈리티는 우리가 매일 행하는 전례성사와 우리의 경당에 주님의 현존을 진실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아줌으로써 성찬의 호스피탈리티를 강화시켜주고 재생시켜준다.

100.공동체와 개인적인 화해의 성사시간 이외에도 고해의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음미하며, 악에 참여하고 협력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하느님과 공동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가운데 변화하여 은총을 맞아들이는 시간을 갖는다. 화해의 성사는 우리가 실천하는 영성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101.병자들에게 기름부음을 행하는 성사는 병자사목에 언제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천주의 성 요한은 이 성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수도회는 전통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온 것이다. 성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인간으로 나타나신 현존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병자성사를 공동체에서 드림으로써 고통과 질병의 세계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현존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예 참여하고, 병자들의 선익을 위한 교회의 기름부음은 의료봉사 수도회 형제로서 영적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102.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전례의 시간은 하느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일치시켜준다. 시편을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로 삶을 바치는 이 길을 비켜나가고 싶지 않은

---

찬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기도가 하나를 이루며,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며, 하느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 도전이 된다. 이는 천자관계의 성사, 공동체와 사명의 성사이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사인 성찬은 교회의 일치와 봉헌 수도자들의 공동체 일치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와 새로이 시작, no.26)

<sup>97</sup> “예수님의 끊임없는 초대와 준비로 병자들의 피난처와 위로와 위안이 되며,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괴로워할 때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혜이다.” (회헌 30c)

것이다. 성교회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인류 특히 고통 받는 사람들, 즉 교회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영성에 있어서 이 차원을 우리가 새로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혹은 거룩한 성자의 기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목소리가 되어 생명의 하느님과 자비의 하느님의 은총을 주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간청을 해 주어야 한다.

#### 4. 수도회와 공동체의 영적인 길에 참여자들

##### a) 카리스마적 전승

103. 우리의 영적인 길은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 수도회와 공동체의 길이다. 영성은 전달과 “접촉” 그리고 친교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호스피탈러티의 양성소로 공동체가 (현재와 과거 모두) 중요하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부름 받은 형제들의 공동체로 사는 우리는 호스피탈러티의 카리즘을 은사로 받았기에 성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 의료세계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회헌 26a). 수도회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대한 영적 전통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이 전통에 창의적으로 충실하게 따르며 살아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호스피탈러티의 은사를 더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04. 형제들과 우리에게 앞선 기관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보았다. 이들은 영적 전통의 대리자이자 증인이 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영향은 우리 수도회의 본근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젊은 형제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나이가 든 세대의 형제들과 위대한 전통 안에서 양성을 받은 형제들이 카리스마적인 부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b) 형제적 사랑

105. 천주의 성 요한처럼 우리도 형제애의 유대를 맺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의 세속화로 인하여 가장 부정적인 결과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회에서 형제들의 사회적 정체성 상실이다. 이 사회가 봉헌된 수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점차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곳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고 사회적 지지가 있는 그룹을 찾아 강하게 결속해주는 근본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 정체성의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이다. 만약 영적인 개별화로 공동체에 봉헌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성소적 이유를 제대로 받혀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거나, 혹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주체성을 가지려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아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106. 호스피탈리티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손길을 뻗고 맞아주며 이해하고 사랑과 친절을 보이며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회헌 36b). 같이 생활하는 다른 형제들도 자신과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며 서로를 친교로 결속해 주고, 세대와 문화, 민족이 다르지만 시대의 징표와 증거가 되어 인류 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존해 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107. 친교로 형제애의 징표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소망하신대로 원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것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초대이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보이는 징표이다 (참조. 요한 13,35; 17,21; 회헌 26b). 사회의 징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들간에 형제애를 보이는 친교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점은 복음서에서도 항상 그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형제적 친교는 신학적인 면이나, 구체적인 사명의 도구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한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 (참조. 마태오 18,20; 봉헌생활 42).

### c) 공동체에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108. 자비로운 호스피탈러티의 공동체는 우리 영성에 있어서 이상적인 환경이다. 이곳은 삶의 자리 (biocoenosis), 생활터전 (biotope), 즉 사람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곳을 말한다. 공동체란 우리가 서로를 알고 함께 생활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하느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존중해주며, “우리 공동체는 그 본질에 있어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호스피탈러티의 양성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 생활이 개인주의로 흐르는 성향을 극복하고, 정신과 대화 그리고 만남을 통해 친교를 다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들과 신앙 그리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나아가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주고, 형제애로 고쳐주며, 서로간에 하느님의 체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109. 전례행사, 공동기도, 공동체 모임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모임가운데 중심으로 맞아들이는 행위이며, 이 자리를 통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의사소통과 대화를 하며, 우리 생활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각 형제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맞아들여야 한다 (참조 회헌 38,3).

110. 호스피탈러티 공동체는 특별히 영적 판별이 뛰어나야 한다. 앞으로 다른 어떤 면보다 우리가 이 점을 더욱 더 개발해야 할 것 같다. 선한 정신을 판별한다는 것은 지적인 안목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아무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판별을 할 때 공동체는 하느님 앞에 겸손 되게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판별을 할 때 기도가 필요하며, 하느님은 언제나 가장 소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신비를 드러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느님의 소리와 형제들의 소리에 경청하도록 해야 한다.

#### d) 호스피탈리티 사명을 띤 공동체

111. 호스피탈리티의 사명은 수도회가 존재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친교와 사명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완성시킨다 (참조. 회헌 41a; 43c).
112. 우리는 개인이 바탕이 되어 활동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우리를 보내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를 지지하며, 천주의 성 요한의 수도회 형제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한다 (참조. 회헌 43c).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할 수 없으며, 연로하여서 혹은 병환 때문에 혹은 다른 공적업무로 인하여 사도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사도직에 임하는 다른 형제들이 하는 일에 용기와 활력을 주도록 한다. 특히 연로한 형제들이 많이 있는 곳,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전문 사도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사회적, 신체적 여건에 놓인 형제들이 있는 곳은 사명을 중심으로 한 친교의 정신을 더욱 육성시키고 이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113. 우리는 호스피탈리티를 통하여 공동체를 만들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회헌 5b; 참조 마르코 3,13-14). 사명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는 그 존재의 의미가 완성되며 (회헌 41a), 하느님 및 우리 형제들과 우리와의 만남의 결실이 맺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행하는 사명을 통하여 신자인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동정심과 자비가 가득한 복음서의 그리스도가 현실화된다. 그리스도가 호스피탈리티가 되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어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회헌 2c; 5a).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호스피탈리티 은총의 결실이다 (회헌 2b). 이는 곧 우리의 사도직과 기도생활, 형제적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활동과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호스피탈리티가 우리를 사도로 만들어주며, 우리가 기술과 재능을 전문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 우리는 사도가 된다. 또한 나이 때문에 혹은 다른 제한으로 인하여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보살피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이루는 특성이 호스피탈리티의 활동과 행동에서 흘러나오므로

우리는 여전히 사도이다.

114. 사도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중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회헌 43c).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호스피탈리티를 보여줄 때 회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영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매체가 된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영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는 결코 안된다. 사람들 가운데 융화하는 것은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도적 분산(diaspora)이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회헌 5b; 41a).

### e) 교회와 공동체

115.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에 속한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자극인 교도권 (Magisterium)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지만 우리에게 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랑의 봉사와 치유를 행하는 사명의 증거자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만드는 교회의 사명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당이 우리가 고해하고 믿음을 경축하는 장소인 것처럼, 수도회의 사도적 활동을 통해 우리도 고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장소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sup>98</sup>

116. 교회와의 친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동정심 있고 자비한 사제”로 형제들의 성소를 채워준다 (참조. 회헌 7c; 30b):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융화하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존중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시고자

<sup>98</sup>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듯이 교회도 우리를 필요로 하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우리의 성소와 우리 수도회의 카리즘은 신자들의 마음에 언제나 들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모범이 되어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이룩해야 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피에르루이지 마르케시: “2000년을 향한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형제들의 호스피탈리티” - 로마, 1986.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에 내려와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불평등을 없애려 한 자비의 하느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였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호스피털리티와 섬김을 실천하도록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시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도 반복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자신을 바친 예수님이 성찬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참조. 요한 13,1-17; 루가 22,17-21).

## 5. “개인적인” 영성의 길

117. 하느님 백성의 길을 따르고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 각자는 유일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영성의 길을 가면서 아무도 우리를 대신 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이 나만이 절대적인 책임을 갖는 길이다.

### a) 영성의 길에서 바치는 개인 기도

118. “우리가 사랑의 선교를 행하는 근본 원천은 성부의 자비로운 사랑이다 (참조. 요한 4, 10-11).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기도의 대화를 통하여 내적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융화하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 하느님의 사랑을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회헌 28a).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비의 신비를 보이려고 원하신다 (성 베네딕도 메니).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굽어보시며, 무한하게 친절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마리아 막달레나, 자캐오와 베드로를 맞아주셨듯이 예수님은 어린이와 죄인들을 살피시고, 병자들의 침상 곁에 굽어보시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마음을 열고,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과 가슴에 비추어,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

119. 개인 기도를 바치면서 형제들은 하느님과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진리와 역동성을 깨닫게 된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기도가 점차 강렬함을 발하고 더 확대되어 결국에는 항상 기도를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하느님과 상호 대화를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나타내준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도와준다 (로마서 8,26-27).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며, 기도 중에 성령이 영감을 보여 주어 우리를 놀라게 해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과 일에 몰두하다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영성의 길이 막히면서 사실상 퇴보하게 된다.

## b) 개인적인 영성 프로젝트

120. 모든 형제들은 개인 생활계획서에 영성의 길을 나타내고 신중히 작성하며, 영성 지도자나 동료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 식별해 가면서 가능한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1. 개인 생활계획서는 지속적인 성소생활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받은 성소를 책임감 있게 취하여, 언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그리고 형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22. 생활계획서는 하느님과 맺은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하느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백성들과 맺은 하느님의 약속에 봉헌한 우리의 특성인 정결, 청빈, 순명 그리고 호스피탈리티는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도적 제자로서 활동을 할 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복음적 권고를 실천에 옮길 때 성령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에 대항하고, 나약한 사람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예언적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복음적 사명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적인 선교를 실천함으로써 자라게 되며,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에 우리를 보다 더 깊이 융화시켜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는 더욱 일치할 수 있게 해준다.



123. 개인 생활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형제로서 사람들을 항상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의 호스피탤러티 영성을 가장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곧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영원히 봉사하며, 조건 없이 손길을 뻗고 맞아주는 영성이다; 사람들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나약함이 있는 곳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천주의 요한처럼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형제들을 차별화하는 태도와 행동, 즉 겸손하고 인내하며 책임있는 봉사를 실천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이해와 사랑, 친절과 극기의 태도를 보이며* (회헌 3B), 이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에 연대감을 보여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헌신할 때 (14), 그 길은 사랑의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곳이다.

### c) 사명에 대한 묵상

124. 사도직 활동은 단지 외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과 부활하신 예수의 사명이자 성사이다. 우리는 내적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융화 시킬 필요가 있다 (참조. 회헌 28a; 103a). 사명에 임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이 순간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과 일치를 이룬다. “하느님 일꾼들이 끝없이 직면하는 위험은 주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모든 활동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II). 우리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사랑의 활동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언제나 새로이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호스피탤러티의 “신비”는 바로 묵상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없이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다: 작은 이들 – 모든 사람들이 다 “작고” 나약하다는 살아있는 예수의 상이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신체를 보살피며 치유하여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고, 종교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영성에 핵심이 된다.

125. “우리들의 자비로운 사랑이 결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님을 깨달아” (회헌 42c), 고통 받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꼈을 때 우리 사도직의 결실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호스피탤러티 사도직이 영성의 근원이다.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화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화를 느끼는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들,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느님이 신음하고, 부탁하며, 감사하고 계신다...하느님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느님의 말씀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다양함을 보이는 이민자들, 병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며, 우리와 다른 점이 있기에 성령은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 하신다; 여러 민족간에 그리고 각 개인간에 존재하는 가치관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풍성해 지는 것 이것이 영성의 근원이다. 성령이 예측할 수 없듯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다.

126.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는 사도직은 인간화가 녹아 내리는 진정한 양성소이다: 이것은 나자렛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내리신 인간성을 다시 되찾고, 이기주의를 정화시키며, 연대감이 결여된 곳에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사랑과 자비의 활동으로 밖을 향해 손길을 뻗혀 이들을 맞아들이며, 이해하고, 섬기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모습을 유행시키고 전파시킨다. 아픈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수익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기관이기도 하다: 환자는 “우리의 우주” (피에르루이지 마르케시)로, 이론의 도움 없이 순수과학, 순수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호스피탈리티 사도직은 또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수도회의 모든 사도직 센터에서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나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고통 받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사도직 활동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 (회헌 103b)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새로이 하고 있다; 병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다 바친다면 (회헌 22b; 1d);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높여간다면 (회칙 127b); 천주의 성 요한이 지닌 호스피탈리티와 같은 주파수인 *도덕적 지도자가 되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양심*<sup>99</sup> – 오늘날은 *재창설자*<sup>100</su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을 가진다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sup>99</sup> 피에르 루이지 마르케시 : “2000년을 향한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형제들의 호스피탈리티” – 로마, 1986.

<sup>100</sup> 사명에서 영성은 열정과 예언적 상상력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사도적 창의성을 통해 표현된다. 영이 부족하게 되면 일상적이고 단조로우며 반복적인 생활을 보인다. 그러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면 모든 것에 활력이 있고 재창조를 한다. 호스피탈리티 영을 가진 형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결코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느님 왕국의 진기함을 발견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며, 우리가 사명에 깊이 동화되어 일할 때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일하고자 할 것이다 (회헌 23a). 우리는 협조자들과 함께 인간의 소중함을 육성하고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부름 받은 “호스피털리티 문화”를 발전시키고 심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 d) 영성의 길의 신체적인 면

127.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육화 되어 각 개인에게, 봉사하는 형제들 안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병자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안에 현실이 되었다. 유형은 인간 관계의 중재의 형태로, 우리의 영적 과정의 일부를 이룬다. 우리의 신체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며, 그리스도 몸의 일원이다. 우리 신체의 사명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신체에 새겨져 있다. 신체는 실존적 모험의 장소이다. 그것은 성찬의 성소가 있으며, 아버지 천주의 성 요한이 내어 준 신체처럼 우리의 신체도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변화 된다. 호스피털리티를 실천하는 형제들에게 정결의 덕은 개인적으로 비옥함의 씨앗이다. 왜냐하면 “이 사도직으로 우리는 생명을 섬기고 보호하며 복돋우는 사명을 수행하고, 신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회헌 10d).

128. 정신과 신체가 일치할 이룬다는 것은 신체를 통하지 않고서 영성이 있을 수 없고, 정신과 적절히 목적을 이루지 않는 신체로 숭배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정신과 신체의 균형과 영성 생활의 관계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우리 신체의 균형, 즉 평화, 내적 안정, 사랑과 민감함을 높여가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그의 손을 아픈 사람 몸에 올려놓고 치유를 하였다 (루가 4,40)<sup>101</sup>.

#### e) 깨어있음과 성령에 대한 감수성

<sup>101</sup> 우리 신체는 자연과 지극한 관계가 있다. 바로 이점을 우리가 교육하려고 하는 점이다. 우리의 영성은 생태학적 특성을 깊이 취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모든 인간의 신체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불행과 퇴화의 가능성을 보다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129.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형제들은 이 시대에 각기 다른 곳에서 성령의 활동에 깨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각성은 행동 뿐만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실천하는 순교의 정신<sup>102</sup>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시어 성체를 바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자신을 없애고 겸손한 영성으로 그분의 증거자가 되고, 남녀 모든 평신도들과 친교를 나누며, 평신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힘을 발견하고, 상호 관계를 맺으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 정의의 증거자로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임해야 한다.

## 6. 영성을 길을 향한 양성

130. 영성의 길은 수도회 입회 초기 몇 년을 가리키는 “카리스마적 도입 혹은 초기” 단계와, 수도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지속양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03</sup>

### a) 제 1단계 : 카리스마적 도입 혹은 개시

131. 초기 양성과 전문 훈련기간동안 형제들은 공부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전문 사도직에 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좋은 수도자가 되기에 정진한다. 이 시기는 이상을 위한 시간으로 거룩함과 친교를 다지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때이다.<sup>104</sup>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sup>102</sup> 수도회 형제들의 삶에는 언제나 순교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비의 정신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이며 희망의 선포이다. 순교는 하나의 선물이다. 이 점은 언제나 인정되어온 바이다. 이것은 순교자에게 선물이며, 수도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역설적인 선물이긴 하나 참된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안정된 것만을 찾는다면, 어떤 모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삶은 “호스피탤러티를 실천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 삶의 시야에서 순교의 정신은 우리 생활에 특별한 색채를 가미해준다. 소외 받은 사람들,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비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순교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감옥에 있었다”, “나는 추방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sup>103</sup> 수도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단계별로 신중히 육성해야 할 중요한 특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초창기 몇 년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 성숙의 단계,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적극적인 사도직에서 점차 물러나는 시기로 구분된다. 모든 수도단체의 모습, 특히 그 미래의 모습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 공동체, 각 관구마다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여 형제들이 적절한 양성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양성 프로그램, 132, 참조 수도회 지속양성, 1991.)

<sup>104</sup> FP, 39와 44

이다: 자신이 알고 느끼는 대로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해 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럴 때는 다른 방도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형제들은 “방법의 눈을 통해” 현실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이상을 통해 현실을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응하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 접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실의 본 모습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일상의 모습이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항상 꿈꾸어 왔던 이상과 부딪히는 모습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좌절과 실망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구현하는 길에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약함을 경험하고 받아 들이며, 갖고 있는 생각들의 비실존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조직의 한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sup>105</sup>

132.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도직 활동에서 물러서야 하는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된다. 이런 위기를 겪는 시기가 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호스피탈리티의 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몸소 좌절과 고통, 나약함과 버림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였던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회헌 21) 했던 다짐과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기 위해 부름 받았고 봉헌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참조 히브리서 2,14-18).<sup>106</sup>

#### b) 제 2단계 : 실천의 책임

133. 초기 단계가 지나면 수도회 형제들은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에 전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와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 일을 실행하는 책임을 받게 되며, 또한 형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sup>105</sup> Ibid., 46-57. 우리 양성 모델의 특성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경험적, 개인적, 점진적이고, 차별화되어 있으며, 자유롭고 예언적이며 또한 보편적이다.

<sup>106</sup> Ibid., 24: “이는 우리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이다. 우리 형제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서를 창의적으로 따르며 증거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수도회가 취하여야 할 하나의 도전이다.

인 지지와 특별한 동반이 필요한 시기이다.<sup>107</sup>

134.중년이 되면 일상적인 반복과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되며, 지금까지 해온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아 열정마저 때로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기가 오면 복음서와 우리의 카리즘을 다시 한번 되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처음 그 사랑,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성소의 열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의 성소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과 새로운 동기를 찾아야 한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핵심에 주력을 해야 할 단계이다.<sup>108</sup>

135.성숙된 연령에 이르면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삶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일에 대해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영적인 길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추켜 세우고 우리를 정화시키며 보다 더 큰 너그러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는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경험과 선물을 성숙케 하는 때이다.<sup>109</sup>

### c) 제 3단계 : 증가되고 있는 한계들

136.노령은 병환으로 인하여 혹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사도직에 왕성하게 임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시기가 때로 힘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부활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비로운 호스피탤러티의 사명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물들여져 있다. 따라서 형제들은 훨씬 이전에 시작된 영성의 신비스런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최상의 사랑의 행위로 또한 완전한 헌신의 행위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sup>110</sup>

### d) 결정적인 순간들

<sup>107</sup> Ibid., 92와 137c

<sup>108</sup> Ibid., 26: 수도회 영속의 양성, 33

<sup>109</sup> Ibid., 136: 수도회의 영속 양성, 34

<sup>110</sup> Ibid., 44: 수도회의 영속 양성, 35 & 36

137.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 삶은 언제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위, 실패, 역사적인 사건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나, 질병, 우울, 상실, 부정, 신앙이나 정체성의 위기와 같은 내적인 요소들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긴장을 자아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영적 완성은 기도를 통하여, 형제간의 우애와 우정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중요하다.<sup>111</sup>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과 맺은 서원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길이며, 그 서원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섭리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sup>112</sup>

---

<sup>111</sup> 영적인 길을 각자 걸을 때 초기 젊은 시절 뿐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영적인 지지와 동반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주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요한의 관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의 모습이다. 주님을 향한 길을 나설 때 특정한 형제나 자매와 심오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자극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장상들은 공동체 회원들 각자에게 영적인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sup>112</sup> 양성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긍정적인 것과 혹은 부정적인 것을 융화하고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





## 맺음말

138.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의 형제로서 우리 안에 영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갈망을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물은 넘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 지며, 새로운 왕성함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호스피탈리티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기쁨과 열정이 넘쳐 날 것이며, 고통 받고 소외된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비유가 될 것이다.

139.하느님의 백성과 전 인류가 우리의 증거를 필요로 할 것이며, 우리의 정신은 인간화를 시키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과 우리도 그 일부가 되는 모든 인류로부터 받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도 강조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하느님의 백성이며, 인류 공동체 일원임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 발전하고, 더욱 깊어지며 적절해짐을 믿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과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과 재능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성을 생활화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140. 자비의 예언자로서 그리고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으로 고취한 사람들로써 우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3000년대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전한 서한 Nove millennio ineunte에서 말씀한 초대에 응하도록 한다: “Duc in altum!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sup>113</sup>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길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다.

---

<sup>113</sup> NMI 58

## 목 차

시작의 글	3
도입	7
1. 시대의 변화	7
2. 이 점에서 살펴본 성교회와 수도회	9
<b>I. 기억 : 우리 카리스마의 근원</b>	13
1. 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인 길	13
a) 비움 : 은총을 받기 위한 비움 – 1단계	13
b) 부르심 : 영원히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 2단계	14
c) 변화 : 하느님 말씀을 듣고 회심 – 3단계	15
d) 일체 : 가난한 예수와 가난한 인류 – 4단계	17
2. 전통	
창립자이신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의 승계	20
a) 성령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 : 첫 수사들	20
b) 유산으로 전승된 병원 정신	22
3. 천주의 요한 카리즘의 “시대적 적절성”	
함께 나누는 사명과 토착화	26
<b>II. 근원</b>	
기본 범주인 자비와 호스피탈러티	29
1. 출발점 : 자비와 호스피탈러티, 죄와 폭력	29
2. 자비	30
a) 자비의 하느님	30
b) 자비의 구현	31
c) 수도회 카리즘에 깃들여 있는 자비	33

3. 호스피탈리티	34
a) 호스피탈리티는 무엇인가?	34
b) 묵시적인 차원에서 호스피탈리티	36
c) 우리의 아버지 천주의 성 요한의 호스피탈리티	38
d) 회헌 및 수도회 문헌에 나온 호스피탈리티	39
4. 이 시대에 맞는 자비와 호스피탈리티 : “외부인”과의 관계	41
a) “이방인들”과의 관계	41
b) 호스피탈리티와 자비의 견습	43

### III. 영성의 길

“현시대” 천주의 요한의 길 따라가기	47
1. 오늘날의 영성	47
2. 영적인 길의 방법론 혹은 모델	48
a) 비움의 경험 : 완전히 탈바꿈한 “새로운 탄생”	49
b) 평생 지속될 “부르심”: “들어라, 내 아들이!”	50
c) 변화와 봉헌	52
d) 가난하고 소외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예수와 신비로운 일치	53
3. 하느님 백성의 길에 참여하기	53
4. 수도회와 공동체의 영적인 길에 참여자들	55
a) 카리스마적 전승	55
b) 형제적 사랑	55
c) 공동체에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하느님 뜻을 식별하기	56
d) 호스피탈리티 사명을 띤 공동체	57
e) 교회와 공동체	59
5. “개인적인” 영성의 길	59
a) 영성의 길에서 바치는 개인기도	60
b) 개인적인 영성 프로젝트	60
c) 사명에 대한 묵상	61
d) 영성의 길의 신체적인 면	63
e) 깨어있음과 성령에 대한 감수성	64

6. 영성의 길을 향한 양성	64
a) 제 1단계 : 카리스마적 도입 혹은 개시	64
b) 제 2단계 : 실천의 책임	65
c) 제 3단계 : 증가되고 있는 한계들	66
d) 결정적인 순간들	66
 맺음말	 68